교회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f Christian educat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Church

By

DO YOUNG CHUNG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Freshmeadows, New York

2012

ABSTRACT

The impact of Christian educat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Church

BY

DO YOUNG CHUNG

Abstract

God's mission is to continue to do the work of Jesus Christ in immigrant churches in different regions where we live. This God's mission is to save the world through activities of immigrant churches. Leading young children to Christ through after school program and Christian Education are part of God's Mission.

Therefore, God's mission is to witness the Cross of Jesus and Resurrection through Gospel and conviction. My research was on the people who have received Jesus as their Savior and to become the disciples of Jesus through change. My study was focused on the change of society that we live and the church according to God's Words and proclaims the Kingdom of God using our words and actions. Moreover, I studied on witnessing to the young children through after school program.

Children from minority background often resist going to school starting from their first school experience in preschool because of their physical differences. Often they become the target of being picked on or bullied. These children also experience crisis mainly because of their parents or caretakers' limited English proficiency. They feel frustrated because of conflicts that arise from unsolved psychological issues. Therefore, these children have hidden potential to become problem children as they grow up.

Children who do not speak English have a hard time getting friends or takes long time meeting a friend. At the beginning of immigration to America, these children tend to spend time by themselves, hang around with the children from the same nationality or stay with the parents. But as they become proficient in English language, they make friends naturally. I find that the things that they enjoy playing are not much different from Korean children and other nationalities.

This study involves our after school program which we have operated since 2008. We have been applying after school program within our church in order to form a community within multicultural society.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in the children is that children get along without any prejudices or bullying. Children also learned to

understand other culture and accept them readily. In the future, we will strive to continue to expand this program through sharing of cultures, food, recreation, etc. We will experience that our churches and society that we live in can live as a community of Jesus Christ.

Christian Education is meeting one another in Christ. We experience change through the meeting of different cultures of Korea, China, South America, African Americans and many other through meeting with one another. We are changed into the community of Jesus Christ through learning about one another, sharing of their cultures. We experience that we are one body in Christ and expanding into society that we live in. Therefore, Christian education is to grow in relationships through meeting with one another in Christ.

The Biblical basis of this Christian education will become witness of God to multicultural community. God's Words are based on the True events and the purpose of Christian education is to call for faith and love.

Currently we serve 40 school age students at Galilee After School Program. Teachers are consisted of 7 New York State Certified teachers. Children are helped in various academic areas, homework help,

individual tutoring, sports and recreation. We provide individualized academic help according to age, grade level and their ability.

This study will look at first, how after school program will bring positive growth by discussing about the pros and cons of operation. Secondly,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have been much improved and children understand better about their parents. Thirdly, children improve on school work and positive changes in their lives.

Fourthly, hyper active children who were having hard time sitting in a chair in school have been changed by showing interest in reading for longer periods. Fifth, children who lack social skills are learning to interact with one another and share with other children. Sixth, church members' active participation in after school program has brought positive attitudes and growth in their faith.

Seventh, financial growth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use of afterschool program while parents work. Lastly, afterschool program allows interaction between other culture and people through meeting and learning activities.

목 차

표. 그림 목차

서　　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이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각기 살고 있는 지역에서 펼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민교회를 통해 세상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활동이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전도와 교회 교육 선교 전략도 하나님의 선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복음 선포와 현존과 설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반응을 하게 함으로서 책임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 되게 하는데 이 연구의 관심을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지역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전도와 교회 교육 선교 전략을 연구자가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첫 사회적 경험 장소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자신의 외모적 특성에 의하여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게 되고 따라서 대부분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주 양육자인 부모의 원활하지 못한 언어 능력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사회심리적인 갈

등을 해결하지 못한 좌절감 때문에 심한 자아 정체감 위기를 겪는다. 그래서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은 영어를 배우기까지 친구를 사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민 초기에는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 혹은 부모님과 지내는 경우가 많으나 영어를 배우게 되면 주변 미국인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외국인 아동의 놀이는 또래 한국인 아동과 다르지 않다. 주변 미국인 아동들이 노는 방식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각 출신 국의 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교 Program 을 2008 년부터 교회 안에 적용하여서 다문화 속의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발전되어 변화 된 것은 또래 학생들과 어울림이 부드러워졌고 다툼과 따돌림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을 놀이문화에서 음식 문화까지 그리고 민족 간의 휴일 문화도 공유하도록 발전시켜 감으로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나아갈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만남이다. 우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Korea, Chinese, Spanish, Afro-American 등 다양한 언어 문화권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다민족들과 함께 놀고, 배우는 변화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중심 속으로 교회가 발전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 몸 공동체가 체험하는 사회화의 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독교 교육을 회심과 성장, 관계, 만남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교회 기독교 교육이다.

이러한 교회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안에 계시하시는 다민족 공동체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창출을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다. 성서로서의 하나님 말씀은 계시사건의 근거이다. 신앙과 사랑에로의 부름이 기독교교육의 목적이다.

현재 갈릴리 방과후 학교는 School Age Students 를 대상으로 40 여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사는 뉴욕주 Certificate Teacher 로 7 명이 가르치고 있다. 교육은 주로 Home Work, Pre-Study, Sports, Arts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학년별, 수준별로 다양하게 학급을 편성하여 학습과 사회적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이민교회가 왜 방과후 학교를 함으로 교회 성장에 어떻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가에 대해서 운영의 장, 단점을 언급하게 된다. 둘째는 방과후 학교를 통한 자녀들과 부모들의 대화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자녀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셋째는 방과후 학교 교육으로 참여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좋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교육적 변화는 잠시도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는 학생들이 책 읽는 습관을 통해 바른 학습 자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 사회적 변화는 혼자서 놀기를 좋아하던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양보할 줄 아는 이해심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 여섯 번째, 방과후 학교를 통한 교회 성도들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밝은 신앙의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곱 번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 할 수 있어서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활동에도 활기를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방과후 학교는 타민족 다문화 권과의 관계를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의 장과 만남을 넓혀 나가고 있다.

I. 이민 교회의 다양성.

1. 연구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After School 및 Daycare 포함)는 뉴욕시 5개 보로 중 하나인 Queens Boro(58-30 193 St. Fresh Meadows, NY. 11365) Fresh Meadows에 위치에 있는 광야교회 갈릴리 방과후 학교(Kwang Ya Church @Galilee After School)에 속해 있다. 광야교회는 갈릴리 방과후 학교를 위한 교회로 학생들이 대상이며 본 연구에 대상이 되는 교인은 뉴욕 갈릴리교회 구성원이다.

주후 2012 년 5 월 12 일 연방센서스 국이 발표한 2010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한인 인구는 지난해 4 월 기준으로 총 9 만 6741 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10 년 전과 비교했을 때 1 만 268 명 늘어난 것으로, 11.9%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퀸즈는 뉴욕시 5 개 보로를 포함한 뉴욕주 전체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10 년간 인구증가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퀸즈 칼리지 민병갑 사회학교수는 "맨하튼의 인구증가율이 높은 것은 한인 2 세들의 전문직 진출이 많아졌고, 유학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퀸즈의 경우 한인업체의

경쟁이 심하고, 교육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뉴저지 등으로 많이 이주했다.”고 덧붙였다[1]

또한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시안 인구는 102 만 8 천여 명이고, 중국인이 48 만여 명으로 47.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인도인 인구가 크게 늘어 19.4%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한국인 9.4%, 필리핀인 6.6%, 일본인 2.4%를 기록했다.

뉴욕시에서 퀸즈 지역은 한인 이민자들이 밀집해 있는 거주지역이면서 초기 이민 정착지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갈릴리 방과후 학교는 바로 그 초기 이민 정착지이면서 한인 밀집 거주지역의 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초기 이민 정착지로서 언어, 쇼핑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지역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고 이에 따른 초기 이민자들의 자녀 교육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된 곳이어서 부모들이 이민의 정착을 위해 부부가 직업에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돌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방과후 학교와 데이케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광야교회는 2002년 9월 5일 뉴욕주 Suffolk County에서 설립하였다. 교회시작은 뉴욕시 퀸즈 후러싱 지역에서 개척되었다. 주일에는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기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교인의 연령층은 10-20대가 70%, 30-50대가 25%, 50대 이상이 5%이다. 이민교회

[1]http://www.krbusa.com/news/view.asp?idx=4632&pageno=

특성상 수평이동이 50%, 학원을 통한 어린이와 청년 대학생이 50%를 이루고 있다. 초신자가 50%이고 기존 신자가 50%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퀸즈 지역은 초기 이민 정착지역으로 한인 이민인구가 증가추세이다.

갈릴리 방과후 학교는 2008년 5월에 뉴욕주(뉴욕시)로부터 정규 인가된 방과후 학교로 시작되었다. 2000년부터 비 인가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특히 2007년에는 시 당국으로부터 비 인가된 학원으로 단속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고 그 이듬해인 2008년 5월에 합법적인 방과후 학교를 개교하게 된 것이다.

2.연구의 목적

교회성장운동의 아버지인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하나님의 뜻이 잃은 자들을 발견한 것, 즉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속적인 관계 속으로 인도하여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가족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

이민 사회의 학원(방과후 학교, 중고 입시학원, 대학 입시학원, 유아원

---

[2]Donald A. Mcgavran,*Understanding Church Grouth*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0), 24.

포함)의 문제는 크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인 밀집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학원들이 말해주고 있듯이 학원(방과후 학교, 중고 입시학원, 대학 입시학원, 유아원 포함) 운영자들의 교육적 소명감이 요구된다.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회는 역시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3]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했다. 잡화상처럼 인기 품목을 취급하다가 다른 상품으로 쉽게 바꾸어 버리는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가 성인이 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건강한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열정과 사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 교육 당국에서도 이러한 양질의 교사와 운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갈릴리 방과후 학교는 더 많은 이민교회가 합법적인 학원(방과후 학교, 중고 입시학원, 대학 입시학원, 유아원 포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데이케어 교사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설립 운영까지 돕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합법적인 학원(방과후 학교, 중고 입시학원, 대학 입시학원, 유아원 포함)이 많이 설립되게 되면 이민 자녀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원(방과후 학교, 중고 입시학원, 대학 입시학원, 유아원 포함)을 운영하게 되는 이민 교회에도 자립과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민교회가 지향하는 "타운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타운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

[3]정일웅. *교육 목회학* (서울: 솔로몬 말씀사,1993), 5

사랑이 충만하게 흐르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정규학원(방과후 학교, 중고 입시학원, 대학 입시학원, 유아원 포함)들이 연합회를 조직 구성하게 되면 주 교육당국과도 좋은 정보와 자료를 협조하게 될 것이고 좋은 교육적 아이디어도 주 교육 당국에 제공함으로써 한인 이민사회의 건강한 정치력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4] 지역사회를 위한 광야교회 갈릴리 학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변화에 대한 용기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것을 단기간에 성취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한 단계씩 실천해 가면서 부단한 자가 분석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이 요구된다. 신앙생활과 교회 활동을 통해 관계된 이민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교회 특성상 지역사회의 충분한 파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꾸준한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부모들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일지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회는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내 헌신자 그룹을 양성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이 과정은 교회 내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 위탁을 통해서 훈련시켜야 한다. 준비된 교육 팀은 효과적 학원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과했어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의

---

[4]홍기영, *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선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2000),269.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방과후 교육을 위해서는 이벤트와 같은 특별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만남의 시간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교회 행사로는 절기 행사 혹은 특별 집회 등 비정기적 교회행사를 적극 활용한다. 총신대학교 정성구 교수는 "2000년대를 향한 한국 교회의 목회 전망"에서 한국교회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목회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 라고 했다.[5]

---

[5]이중표외 9 인, *교회발전을 위한 선교개발* (서울: 쿰란출판사, 1993), 61

Ⅱ. 교육 목회의 통시성과 공시성

교육목회란 교육과 목회의 합성어다. 목회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는 것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목회는 교육과 목회를 본질적으로 동시적이며 동질적인 것이다. 교회가 교육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수행코자 하는 것이다.

성서적으로 볼 때, 교회가 교육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교회교육은 유대교-기독교의 오랜 전통이었다. 그리고 현실적 욕구에 의해서도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기독교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신앙을 성장시켜 기독교적 삶에로의 변화를 위해 의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교회의 목회적 노력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교육목회에서 목회란 영혼의 돌봄과 치료를 의미하며 의학적 돌봄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목회란 영혼은 물론이고 몸과 정신을 포함한 전인적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통해 온전히 돌보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교육목회는 다 함께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내적인 성숙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외적인 봉사(엡 4:11-12, 딤후 3:16-17)에 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기독교 교회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전인구원이다. 전인구원은 회심, 성장, 성숙 등 총체적 구원을 뜻 한다. 전인구원은 교육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회는 교육을 통해 가장 바르고 바람직하게 성장하게 된다. 교육 목회는 교회의 본질이다.

교육목회는 바로 전인구원 목회여야 한다. 전인 교육목회는 구원, 성장, 친교, 봉사, 헌신, 전도 등 여러 단계들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교육목회는 전인구원을 위해 전문화된 다양성을 추구하는 열린 목회여야 한다. 교육에는 초 신자를 제자화하는(갈 4:19) 양육교육, 제자를 일군화하는(고전 4:1-2, 딤후 2:3) 훈련교육이 있다. 기독교인에게는 구속과 섬김의 이중적 소명이 있다. 믿어야 할 십자가와 져야 할 십자가의 이중적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이중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통시성(通時性)이란 어떤 사물이 역사적 발생을 말한다. 반면 공시성(共時性)이란 하나의 사물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관계를 말한다.[6] 즉 통시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 시간성으로 시간의 순행적 흐름이다. 여러 시대에 통하는 특성(여러 시대에 걸침)이라 할 수 있다. 공시성은 과거와 현재, 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인위적(조작적) 시간성으로 초 현실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통된 시대의 특성(한 시대에 국한)을 말한다.

교육 목회학의 통시성과 동시성으로 성경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육사상과 신학적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볼 것이다.

---

[6]http://blog.naver.com/zurzeit?Redirect=Log&logNo=130005662818

1. 교육 목회의 성경적 연구.

교육목회에 대해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근거와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교육의 특징과 형태는 바벨론 포로시기를 전후로 하여 구분된다. 히브리인 시기로서 창세기 18:19 이하에는 히브리 민족의 대 교육헌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선언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히브리 민족의 확고한 기반형성과 전수를 위해 구체적, 윤리적 교훈과 해답을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찾고 있음을 알게 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가르침에 있었다. 행위적 규범뿐 아니라 구체적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율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을 기독교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자기 책임을 다하는 진리의 비판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7]

유대인 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전후로 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에 의한 교육은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해 주는 것이 되었고, 현대의 학교와 같은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은 지혜와 정의에 올바른 행위를 강조하는 영적 교육을 수행하였고, 이것은 성인들에게 강조되었다. 예언자들은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여 사회정의를 정립했고 민족적 종교를 확립했다. 사회관념을 주도하고 사회교육과

---

[7]정일웅,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서울: 로고스연구원 3 판,1991)

개인적인 정치비판을 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공인된 교사로서 활동했다. 이들의 교육은 외형적 형식이나 율법적 의식보다는 영적 의식에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 교육을 중시했고 결국 메시아 대망의 영광을 향상 가르쳤다. 학교제도의 교사는 현자, 학사, 서기관, 하잔 등으로 불려졌는데 랍비로 총칭되었다. 그리스 로마의 교육과 유대의 교육은 3 단계 체제 즉, 초급, 중급,고급으로 구분될 수 있다.[8]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기에는 예수님의 중요 사역인 선포, 교육, 치유에서 교육은 다른 사역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교육은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메시지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과정으로 이어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교육목회는 그의 공 생애 중 행하신 사역 중에서 기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초대교회의 시기에는 사도들의 사역에서 볼 때에도 그들의 전도사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기초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명령인 마태복음 28:20 이하의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를 실천하였다. 초대교회는 케리그마(kerygma), 다다케(dadake), 코이노니아(koinonia), 디아코니아(diaconia)가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신앙공동체였다. 설교와 교육은 그 기능을 달리하면서도 서로 긴밀한 연계성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디모데전서 3:2 이하에 의하면 가르칠 줄 모르는 자는 목사가 될 수

---

[8]Evert Ferguson,*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Third Edition,*엄성옥,박경범 공역 (서울: 은성출판사,2005),138.

없었다. 이는 목회적 경험을 통해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 목회의 교육 신학적 연구.

중세기에는 교회와 교부의 권위가 확대되면서 교회 공적인 교육이 약화되어 갔다. 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교육목회 차원은 약화되었고 다만 성직자 중심의 특수층 교육만이 이루어졌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전반적인 기독교 개혁이 일어난 후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 신앙교육에 큰 개혁이 일어났다. 어린이 교육과 함께 부모 교육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교육목회적 차원에서 교회는 성서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과 함께 인쇄술의 발명으로 교리 문답서가 만들어졌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근대 이후에는 영국에서 시작해서 북미대륙으로 확산된 주일학교 교육은 문맹퇴치를 비롯한 도덕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의 특성에서 교회개혁 및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들은 역시 공동체성의 회복에 대한 과제로서 오히려 현대 기독교 교육에서는 기독교교육의 목표와 방법론 자체를 연합적 차원에 두는 이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9]

---

[9]Westhoff, J., *Will our children have faith?,*정웅섭 역,*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3),125.

서양에서는 무사양성(지적인 교양보다 신체적 훈련을 중시)이 목적이었던 스파르타(Sparta)식 교육이 있었다. 교육의 내용은 신체훈련, 군사훈련, 전투방법과 기술, 리쿠르쿠스(Lycurgus) 법전, Homer 의 시와 군대음악과 3R's(reading ; 독(讀), writing ; 서(書), arithmetic ; 산(算)이다. 이것은 7 세~18 세는 군사훈련, 18 세~20 세는 전문적인 특수훈련, 20 세~30 세는 실전교육, 30 세는 시민권 교육이다. 교육이라기 보다는 군사훈련에 가까웠다. 후에 히틀러의 나치국가나 일본의 국군주의교육에 영향을 주었다. 18 세가 되면 1 년을 에페베에서 보냈다. 이 교육기관은 원래는 군사 훈련을 위한 것이었는데 헬라시대에 이런 개념이 배경이 되어 공공생활을 위한 훈련기관으로 변했다.[10]

초기 아테네(Athene) 교육(페르시아 전쟁(B.C. 500~497)을 전후하여 초기 아테네교육과 후기 아테네교육으로 나눔)의 목적은 선미(善美)로운 인간 (조화로운 인간으로의 자유시민)이었다. 이것의 내용은 7 세 까지 가정교육이다. 초등교육은 8 세 ~16 세 까지 교복(敎僕 ; paidagogos)에 이끌려 체조학교, 음악학교에 다녔다. 공립체육학교는 16 세~18 세까지 운동경기와 군사훈련을 받고, 20 세까지 군복무.(20 세 시민권)를 했다.

후기 아테네 교육의 목적은 개인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이었다. 교육 내용은 초등교육(8~13) 으로 3R's 와 체육 등을 위주로 한 사설 초등학교 교육이 실시되었다. 중등교육(13~16)에서는 기하, 음악, 천문학, 문법, 수사학 등을 교육했다.

---

[10]Evert Ferguson,*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Third Edition,*엄성옥,박경범 공역 (서울: 은성출판사,2005),139

고등교육은 16 세 이상으로 고등교육기관인 수사(修辭)학교에서 법률 정치, 경제, 역사, 변증법, 수사학 등을 가르쳤다.

소피스트(Sophist) 는 원래 지자(智者)를 의미한다. A. D. 5C 후반에 웅변, 수사학, 기타 여러 지식을 전수하던 직업적인 교육자 또는 철학자를 총칭했다. 이들의 교육 목적은 입신양명에 필요한 지식 및 웅변술을 가르쳤다. 이들은 비로소 최초로 급료를 받은 교사였다.

소크라테스(Socrates. B. C 479~399)는 지덕 합일의 도덕적 인간을 교육 목적으로 했다. 그의 교육 방법은 무의식적인 무지(無知)에서 의식적인 무지로 이끌어, 합리적인 진리에 인도하는 것이다.(대화법, 문답법, 반어법, 귀납법, 산파법) 플라톤(Platon)의 교육목적은 국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상국가 : 국가의 통제 감독하에)이다. 그의 교육 내용은 20~30 세는 산수, 음악, 기하, 천문학을 가르쳤다. 30~35 세는 가장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철학을 가르치고, 35~50 세까지 국가의 정사에 실제경험을 쌓게 한 후, 50 세에 철인으로써 정권을 잡는다.(철인정치) 플라톤은 소수 엘리트교육 강조했다. 플라톤은 4 원덕(四元德 ;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남녀 교육기회균등, Academia 학원을 창설했다. 그의 철학적 입장은 이데아론(이데아 : 존재의 본질, 관념세계를 통해 인식)이다. 그리스와 라틴 수학자들이 저술한 안내서들은 기독교 문학의 형태와 구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크게 확대해 준다. 그리스 수사학 이론은 아리스토 텔레스의 수사학(Rhetoric)에서부터 발달한 것이다.[11]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중용(中庸)의 덕을 쌓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자유인의 양성이 교육 목적이다. 그는 초등교육(신체발육단계), 중등교육

---

[11]Lbid., 150.

(정서훈련, 습관형성단계), 고등교육(이성적 훈련)으로 나누어서 교육 했다. 그의 교육방법은 변증법적, 객관적, 과학적 방법(논리학의 창시자), 이상의 방법은 스콜라철학과 초기 실학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입장은 "사물의 본질은 개개의 사물에 내재한다"는 실재론 주장(질료와 형상)으로 현실주의자였다.

B. C. 146 년 그리스 정복을 기점으로, 이전을 공화시대의 교육, 이후를 제정시대의 교육을 로마의 교육이라 한다. 로마교육의 특징은 그리스 교육방식을 모방하였다. 로마인은 모방성이 강한 민족이었다. 국민성이 실용적이고 실천적이었으며, 법이 발달하였다. 로마인은 실제적 현실적이고, 도덕과 준법정신 강하였다. 그리고 웅변교육을 중시하였다. 로마인은 웅변을 좋아하는 변론적 국민이었다.

공화시대의 교육은 초기 로마에는 공립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병사, 공회소, 농장 등이 아동교육의 중요한 교육기관이 되었고, 그 후 사립학교가 세워짐. 조직화된 학교교육은 제정시대부터였다. 이 시대의 교육목적은 용감하고 순종 잘하는 유용한 시민과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제정시대의 교육목적은 유능한 웅변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당시 교육기관으로는 초등교육기관(ludus)과 3R's 와 12 동판법이다.[12] 당시의 교육기관으로는 중등교육기관(문법학교)과 고등교육기관(수사학교, 철학학교)가 있다. 중등교육기관에는 7 자유학과(3 학과 : 문법, 수사학, 변증법(논리학), 4 학과 : 산수, 기하, 천문학,

---

[12] 2.12 표법(12 동판법: BC 449)귀족과 평민의 총혼 금지하고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의 우위를 인정하는 등 귀족 계급의 배타성과 우월성 인정함 (Ex. 11 표의 귀족과 평민의 통혼 금지, 3 표의 부채 노예제 인정 등), 로마 최초의 성문법으로서 귀족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금지.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83292820&qb=MTLrj5ntjJDrspU=&enc=utf8§ion=kin&rank=10&search_sort=0&spq=0

음학), 희랍 문법학교와 라틴어 문법학교가 있었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수사학 중심의 문학, 철학, 과학은 물론 희랍문법 및 라틴어 문법을 가르쳤다.

로마의 교육사상가 씨에로(Cicero, B. C. 106~43)의 교육목적은 웅변가를 양성하는데 있었다. 그들은 넓은 교양과 사물 및 인간성에 관한 철학적 지식을 가진 자들이다. 씨에로는 로마 최고의 웅변가, 문장가였다. 문예부흥시에는 키케로주의로 나타났다.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A. D. 35~100)도 로마 교육사상가였는데 그 역시 웅변가 양성이 교육 목적이었다. 그는 로마 최초의 공 교사, 공립학교 체계의 건설을 주장하였으며 수사학교를 설립하였다. 그의 『웅변교수론』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계 최초의 교육학에 관한 저서다. 그는 아동의 체벌을 부정하고, 개인차와 개성을 존중하고, 흥미와 유희적 방법 강조하였다. 또한 아동의 개인차와 개성존중, 조기교육, 흥미원리, 공교육의 중요성 등은 현대 교수원리를 대부분 예견하였다. 에라무스(Erasmus)의 교육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의 신학적 쟁점은 구원론으로 대체로 초기의 어거스틴주의적 견해보다는 공로와 상급 사상이 강조 되었다.[13]

중세는 476 년 서로마제국의 멸망으로부터 14C 말 문예부흥운동 전까지를 말하는데 이 때는 신 중심주의 문화로, 초자연주의, 영원주의, 내세주의로 나타나고 금욕주의 사상을 강조하였다. 중세의 교육제도는 문답학교(초등교육 단계)에서 이교도에게 세례를 준비하고 아동들에게 기초적 종교교육(교리문답, 3R's, 찬미가)을 하였다. 고급 문답학교는 문답학교의 교사를 양성했다. 본산학교(사원학교, 감독학교)에서는 성직자(목사, 교구장)를 양성했다.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스콜라철학의 탄생 및 중세 대학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 중세 수도원학교에서는 금욕 생활을 통한 내세준비

---

[13]서요한, *중세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3),474.

와 엄격한 규율과 금욕주의적 방법(순결, 청빈, 복종)을 가르쳤다. 수도원은 도서관, 출판사, 문화센터, 병원 등 오늘날의 지역사회학교의 개념과 비슷하였다. 중등반은 7 자유과를 가르쳤다.

스콜라(Schola)철학은 본산학교와 수도원에서 나타난 철학이다. 이성에 의해 신앙을 합리화 시키고 논리에 의해 신학을 입증하였다. 교육목적은 이성과 신앙과의 조화에 두고, 지적 훈련과 논리적 사고를 훈련시켰다. 스콜라철학의 영향으로 문예부흥 및 근세발달의 동기와 중세 대학의 발달 촉진되었다. 그리고 신 중심에서 인간중심의 경향을 띄게 되었다. 또한 자연과학적 인식을 가능케 하였으며, 항존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스콜라 철학의 지적, 논리적 사고 훈련은 큰 교육사적 의의이다.

기사(騎士)의 교육목적은 기독교적인 무인 양성(전쟁, 사랑, 종교)이었다. 그리고 가정 교육, 시동기, 종자기(七藝), 기사 입문식 등을 결쳐 양성하였다. 기사도 정신은 유럽 신사도 원천이 되었고, 체육교육에도 영향을 주었다. 후기 스콜라 신학도 14 세기부터 15 세기까지는 쇠퇴기 였다. 그 쇠퇴는 형이상학적 인식을 실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주로 스토아 학파에 기초한 유명론 때문이었다.[14]

중세 대학의 발달 원인은 스콜라 철학, 사라센 문화의 영향, 세속적 학문의 필요성 등이다. 중세 대학의 교육목적은 대학교수의 양성에 있었으며, 교수와 학생은 병역, 부역, 세금 등이 면제 되었고 많은 특권이 주어졌다. 중세 최초의 대학은 볼로냐(Bologna)대학(1088)이고, 파리대학, 살레르노(Salerno)대학, 옥스퍼드대학 등이 설립되었다. 중세 대학의 영향은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 실학주의 교육에 영향을

[14]E.S. Moire, *인물중심 교회사*,곽안전,심재원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1993),236.

주었다. 그리고 고전문학의 계승자 역할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언론의 자유가 시작 되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처럼 교회나 세상 인간 같은 보편 개념은 객관적 인 실존을 소유한다고 생각했다.[15]

중세의 시민교육으로 시민학교는 상류계급을 위한 교육기관(문법학교: 영국, 공중학교: 영국)과 서민계급을 위한 교육기관(조합학교: 영국, 모국어학교 : 독일, 습자학교 : 독일)이 있었다. 중세 시민교육 특징으로 시민교육기관은 종교적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의 감독은 주로 성직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상류층과 하류층을 구분하는 학교가 등장하였고, 시민계급에 필요한 생산교육, 직업 교육에 중심을 두었다.

인문주의 교육사상가인 에라무스 (Erasmus,1467~1536)는 기독교적 인문주의자였다. 그는 고전과 성서문학을 중시하였다. 그의 교육방법은 『아동자유교육』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를 중시하였다. 교육적 특징은 조기교육, 교사의 중요성, 교육의 기회균등, 태아교육과 가정교육 중시, 종교개혁의 선구자. 그의 교육사상은 자유주의교육과 인문중심 학교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종교 개혁기의 신교육 사상가는 루터(Luther, 1483~1546)다. 그는 공교육 제도로 교육의 국가 책임론을 주장하였다. 취학의 의무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학교교육을 주장하여 여성교육의 개척자가 되었다. 또한 수업료의 공납제와 무상교육제의 실시를 주장했다. 그는 1642 년에 고타(Gotha)교육령에 영향을 주었다.

---

[15]이병수,우기동, *철학의 철학사적 이해* (서울: 돌베게,1994),64-88.

또 종교 개혁기의 신교육 사상가로 칼빈(Calvin, 1509~1564)이다. 그는 공교육제도와 교사채용의 시험제도 등을 주장하였다. 대학교육보다는 초등교육과 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직업 소명설을 주장하여 부의 축적을 정당화 하였다. 그의 금욕주의적 직업 윤리의 강조는 근대자본주의 직업윤리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메사추세츠 교육령에도 영향을 주었다. 칼빈은 교회 교육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당회(consistory)를 설립했으며 개혁된 교회의 목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제네바 아카데미(Geneva academy)[16]

종교 개혁기의 신교육으로 구교(Jesuit 교단)의 교육이 있다. 구교의 교육목적은 교회의 지도자 양성에 있었으므로 초등교육은 등한시하고 중등과 고등교육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구교의 교육운동으로써 로욜라(Royola)의 예수회교단과 라살(La Salle)의 기독교 동포단체가 있다. 라살(La Salle)의 기독교 동포단체는 무상의 초등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의 학령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사 양성소를 세계 최초로 창설하였다.

17C 실학주의의 교육 사상의 특징은 구체적 사물과 실용적 지식을 존중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자연과 근대외국어와 모국어 등을 중시하였다. 암기나 기억보다 이해와 경험을 중시하였으며 시청각교육을 중시하였다. 본질적으로 귀족적이었다. 인문적 실학주의자(Vives, Juan Luis, Rabelais, Milton)들은 고전을 배운다는 점에서 인문주의 교육과 같으나, 그것을 실제적인 생활에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들의 교육목적은 현실계의 실제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실학주의 정신은 초등학교보다 대학에서 활기를 띠었다. 사회적 실학주의자로 몽테뉴(Michel Eyquem de Montaigne)

---

[16]Alister McGrath, *종교개혁사상*,최재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2006),160.

의 교육사상이다. 그의 교육목적은 세사(世事)에 능통한 신사양성에 있었다. 그는 단순한 기억보다 이해와 판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사를 양성하는데 고전, 현대어, 역사, 철학, 여행, 사회접촉, 체육을 중시함. 특히, 여행을 강조하였다. 감각적 실학주의(과학적 실학주의) 교육 사상가들로는 Francis Bacon(1561.~1626), Wolfgang Ratke (1571-1635), Comenius(1592~1670), Locke(1632~1704)가 있다. 이들은 실물 관찰주의와 실험주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학습방법에서 교수는 모국어로 하여야 하고 자연적 사물의 개념을 가르칠 때는 귀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8C 의 계몽주의의 교육의 특징은 이성주의, 기계주의, 개인주의, 반역사주의, 반국가주의, 반민족주의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이성을 해방시키는데 교육 목적이 있었다. 이들의 교육내용은 합리적인 것만으로 구성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제하였다. 냉정한 비판과 분석적 태도만이 용납되는 교육 방법이었다. 계몽주의 시대는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정신과 소위 근대 세계를 몰고 온 17 세기의 과학 혁명이 어울린 시대였다.[17]

각 국의 계몽기교육에 있어서 영국의 초등교육은 주로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였다. Raikes 의 일요학교는 공장 노동자의 자제들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Lancaster 의 조교학교에서는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생기는 요보호(要保護) 아동을 교육하였고 조교제도에 의한 수업을 하였다. Lancaster 에 앞서 조교제도는 Bell 에 의해 창시되었다. Owen 의 유아학교는 인간의 성격이란 그가 속해 있는 사회

17박용규, *근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8),143.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성장하는 것이라 주장하여 설립한 것이 성격형성학원이며, 이 학원의 부속학교가 유아학교이다.

프랑스의 콩도르세(Condorcet)는 공교육 조직에 관한 계획안에서 학교체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학제의 단선형을 제안하였다. 콩도르세안(案) 이 법안은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1743~1794)에 의해서 1793 년 '입법의회'에 제안된 『공교육의 일반조직에 관한 보고 및 법안』의 법안이다. 꽁도르세안은 지롱드당(黨)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계획으로 "모든 시민에게 공통의 공교육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불가결한 교육부분에 관해서는 무상(無償)의 교육이 조직된다."고 규정하였다.[18] 나폴레옹은 국가주의적이며 중앙집권적인 국민교육제도를 수립하였는데, 이 학제가 프랑스학제의 기초가 되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1 세(Friedrich Wilhelm I, 1688~1740) 는 '의무 취학령'을 발표하여 5 세에서 12 세까지의 아동을 의무적으로 취학하게 하여 의무교육의 시작되었다.[19] 프리드리히 빌헬름 2 세(Friedrich Wilhelm II, 1744~1797) 는 교육의 종교적 통제를 지양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Rousseau 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객관적 자연주의는 외계의 자연을 중요시하고 그에 따라 교육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교육의 내용 방법을 자연현상에서 찾는 것으로 대표자는 코메니우스다. 주관적 자연주의는 인간내부의 자연성에 따르는 것이 참다운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감각의 훈련, 경험이나 활동에 의한 학습 등을 강조하고 아동의 자연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대표자는 루소다.

---

[18]http://blog.naver.com/hosan62?Redirect=Log&logNo=10002726799

[19]http://charger07.egloos.com/3248928

루소의 교육사상의 특징은 주관적 자연주의다. 심리적 근거에 따르는 교육을 하였고 아동중심교육이었다. 그의 교육목적은 도덕적 자유인에 있었고 교육내용은 지식의 체계에 반하여 생활의 원리를 중시하였다. 루소의 교육 방법은 합 자연의 원리로 인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주정주의의 교육은 서적을 통한 독서, 언어교육이다. 그것은 주지주의 교육방법이 아니라 생활의 원리를 통한 교육과 감각훈련을 통해 느끼고 깨달아 가는 방법 즉, 주정주의 교육이다. 직관주의적 교육으로 실물관찰 교육은 실물을 통한 시청각방법에 의한 직관주의적 교육방법을 강조하였다. 루소에게 있어서 소극적 교육으로 학습은 자연발달의 순서에 따라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흥미위주의 자발성의 원리란 아동의 자연성 계발을 위해서는 흥미위주의 자발성 존중, 자유교육, 개성존중의 원리를 중시하는 것이다.

기독교사에서 장자크 루소(J.J Rousseau, 1712-1778)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가 이성을 감정과 의지로부터의 고립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측면에서 고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에 있다.[20] 장자크 루소(J.J Rousseau)는 그의 저서 교육론 "에밀"에서 유아기(1~5 세)는 모친에 의해 양육되는 시기이고 아동기(6~12 세)는 말하기와 오관의 감각기관을 연습하고 자연 벌과 독서를 금지하고 소년기(13~15 세)는 직관주의 교수법, 자기활동의 학습법, 생활활동의 원리에 의한 교수법, 아동의 호기심 유발한다고 한다. 청년기(16~20 세)에는 도덕적, 종교적 교육, 성에 대한 흥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성교육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20박용규, *근대교회사*,(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8), 170.

19C 근대 유럽의 교육육사상은 신인문주의 교육과 국가주의 교육으로 양분되었다. 신인문주의는 18C 의 합리주의적, 주지주의적, 공리주의적 및 개인주의적인 계몽사상의 반동으로 일어난 사상체계이다. 신인문주의 사상가로 Johann Friedrich Herbart(1776-1841, 독일의 교육학자, 철학자 4 단계 교수법의 창시자),[21] Pestalozzi(1746-1827, 스위스), Friedrich Frobel(1782-1852,독일) 등이 있다.

페스탈로찌(Pestalozzi ,1746~1827)는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계발하는 데 있으며, 모든 교육활동은 인간본성의 구체적 전개를 조장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간도야는 사회개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교육을 통한 사회개조를 제창하였다. 그는 교육의 목적도 지적, 신체적, 도덕적 면을 조화 있게 발달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교육내용은 수(數), 형(形), 어(語)에 두고 이 3 자를 기준으로 해서 수에는 계산과 수학, 형에는 도화와 습자, 측량, 어에는 읽기, 말하기, 문법 등을 둠. 아동기에 그 기초를 형성해 주어야 하므로 교육의 내용도 광범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2]

페스탈로치의 교육방법은 심리적 방법을 종합하여 직관교수, 실물교수에 힘을 쓰고, 생활이 도야한다는 생활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교육의 원리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한다. 그 중 하나가 자발성의 원리다. 자발성의 원리는 교육은 아동의 능력을 내부로부터 개발시키는데 자율적 훈련을 중시해야 하다는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방법의 원리다. 방법의 원리란 인간성의 자기발전은 일정한 질서 있는 단

---

[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3097

[2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docId=76070868&qb=7Y6Y7Iqk7YOI66Gc7LmY&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3uSDF5Y7u8ssunG4wVssc--413443&sid=T3CAvUUxcE8AAGFCQcI

계를 거쳐서 실시됨으로 이 단계에 따라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유아기의 무율 단계인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 즉, 타율단계로 나아가고, 최후에는 자율적인 도덕적 상태로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관의 원리가 있다. 모든 인식은 모두 직관에서 출발해야 하며 모든 직관의 기초로서 수, 형, 언어를 중시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또 조화적 발전의 원리가 있다. 도덕적 기능을 중심으로 3H 의 조화적 발전을 교육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리고 사회의 원리가 있다. 사회의 원리는 사회를 떠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리로 '가정생활을 중시하여 모자간의 사랑, 신뢰, 감사하는 도덕교육의 기본으로 삼는 사회의 원리 강조한다.

노작교육의 원리는 신체적 발달을 주로 하는 기술상의 일이라든가 자연을 다루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활동까지도 교육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교육의 원리도 종례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도덕적, 지적, 기술적 교육을 보다 계획적으로 학교 생활교육의 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자기 사명과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문화 환경을 형성하게 하고 이러한 삶의 환경을 실현 할 수 있는 인간들로 양육하고 깨우치는 사역,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어야 한다.[23]

Herbart 의 교육목적은 윤리학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즉, 도덕적 품성의 도야인데 그것은 5 도념을 실현하는 일이다. Herbert 의 교육방법도 도덕적 품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학에 그 기초를 두어 관리, 교수, 훈련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관리는 교수의 예비단계로 아동들의 정숙, 근면, 청결 등의 습관을 가지게 하는 작용으

---

[23]정일웅, *기독교교육학 강의안* (서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1977),25-26.

로 아동이 질서를 지키게 하려는 데 있다. Herbert 에게 있어서 교수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비교육적 교수는 단순한 지식기능만을 전달하는 것이며 교육적 교수는 의지를 도야하여 도덕적인 품성을 도야하는 것이다. 교육은 목회자 자신을 배우게 할 뿐 아니라 양들을 양육시키는 그 자체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육과 목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한 사건의 두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24]

교육적인 교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지식이 의지 감정과 결합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흥미를 일으킴으로써 가능하다. 명료 즉 신, 구 관념을 분명히 구별해 두는 것과 연합 즉 신, 구 관념을 결합하는 것, 그리고 계통, 즉 이 결합한 것을 체계화 하는 것, 방법 즉, 체계화된 하나의 지식을 응용하는 것, 훈련은 교사와 아동이 인격적으로 교섭하여 도덕적인 품성을 강화, 고정시키는 교육작용의 교수 4 단계설을 주장하였다.

Frobel(1782-1825)은 유치원의 창시자다. 그는 은물(恩物)에 의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아동의 선천적 잠재력 계발 즉 神性의 계발이 교육의 목적이었다. 그의 교육내용은 노래, 언어, 율동, 표정, 유희 등 자기활동을 강조하였다. 프뢰벨의 교육원리 방법은 첫째 통일의 원리다. 이것은 만유내재신론(萬有內在神論)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모순, 분열, 투쟁이 아니고 조화, 통일, 융합되었다는 것이다. 신성은 곧 창조성, 활동성으로 자유로운 교육, 자기활동, 노자활동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

[24]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 솔로몬, 1993),113.

두 번째는 자기활동의 원리 즉 자기표현의 원리다. 신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타율적, 간섭적인 교육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활동이란, 자기자신의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고, 자기자신의 흥미로부터 생기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하여 지지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놀이 및 작업의 원리다. 작업적 놀이는 은물(아동이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구성하는 탁상놀이이다. 은물을 통해 감각기관을 훈련하고, 우주의 이법을 깨닫고 신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마지막 넷째는 연속적인 발달의 원리다. 인간의 성장은 각 단계에 있어서 끊임없는 연속이며 단절이나 비약을 없다는 것이다. 이 교육원리는 Dewey 의 교육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교육 목회의 사역에 목적을 제시하고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방향을 정해야 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만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25]

노작교육(勞作敎育)은 '행함으로써 학습한다'는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이것은 학습을 확실히 하여 전인적 교육을 행함으로써 실천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방법에 있어서 자발성의 존중은 인간을 활동적, 의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므로 노작교육의 교육방법원리로 등장했다. 노작교육의 원리는 정신활동을 중핵으로 하여 근육적 작업에 중점을 두고 공작, 미술, 원예 등의 교과뿐 아니라 전 교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노작교육의 종류는 듀이(Dewey)의 수공근로주의, 부로스키(Broski)의 생산학교 및 킬패트릭(W.H. Kilpatrick)의 구안법 등이 있다.

20C 현대의 새 교육운동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경험적인 학습을 중시하는 한편, 교사 아동과의 인간적 결합을 통한 정의적 생활의 순화를 지향하

[25]C.Ellis Nelson,신앙교육의 터전,박원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1996),17.

는 운동이다. 민주화에 지향하려는 새 교육운동은 유럽 각국에서 학교교육 개조운동으로 일어나는데 Reddie 의 新학교(영국), 도모랑(J.E. Demolins)의 新학교(프랑스), Lietz 의 전원학교(독일), Kerschensteiner 의 노작학교, Olsen 의 지역사회학교(미국) 등이다. 신 교육운동이 학교교육 내용에서 출발하여 다음 단계로 아동해방운동 즉, 듀이의 실험학교, 엘렌케이(Ellen Karolina Sofia Key, 1849~ 1926, 스웨덴의 여류 사상가이며, 교육자)의 아동의 세기, 몬테소리(Montessori)의 아동의 집 등으로 나타났다.

몬테소리(Montessori, 1870~1952)의 교육목적은 어린이의 발달 수준에 적절한 교재와 교구를 사용해서 어린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몬테소리의 교구는 어린이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상호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교육 내용이다. 몬테소리의 교육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환경의 구성이다. 이것은 어린이의 발달적 욕구에 적절한 교육환경으로 어린이의 관심을 끓고 주의를 집중,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교구로 구성된, 교육환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업분위기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킬 과제를 발견하기만 하면, 몰두하게 됨으로 교실은 조용한 수업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음은 발달과정에 따르는 교육이다.

이것은 어린이의 주된 교육목적이 잠재력 계발에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신체, 정서, 사회, 능력이 함께 계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생초기는 잠재력 발달, 출생 후 3 년 이내는 세부인지, 양손 사용, 걷기, 언어획득에 민감한 시기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는 관찰자로서의 태도를 지닌다는 것이다.

엘렌케이(Ellen Key, 1849-1926)는 그의 저서 “아동의 세기”에서 교육목적을 아동의 개성을 신장시키고 인격을 존중하고 아동의 자연성에 의하여 지적, 도덕적, 창작적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 그의 교육방법은 아동의 교육은 소극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존중되어야, 그가 제시하는 가정학교로서의 미래학교는 학적부, 상벌, 시험이 없고, 남녀차별, 계급의 차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학습은 자유 선택하도록 하며 강제로 가르치지 아니함을 말한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의 종교교육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또는 기독교 신앙 교육이란 차원에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26]

3.교육 목회의 사회학적 연구.

1) 교육 사회학의 개념 정의.

브라운(Brow)은 교육사회학이란 사회학적 제 원리를 교재와 활동, 방법, 학급조직, 그리고 측정 등을 포함한 전체 교육과정에 응용하는 하나의 새로운 학문으로 정의했다. 프리차드(Prichard) 교육사회학은 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이며 그것은 사회학의 한 하부영역으로 정리한다. 한준상교수는 교육사회학은 교육의 기능 및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파악하는 학문으로 정의,

---

[26]정일웅, *교육목회학*,(서울: 솔로몬,1993),204.

나토르프(Natrop)는 교육사회학 발달과정을 교육의 사회적 조건과 사회의 교육적 조건을 해명하고 있다.[27]

2) 교육 사회학자의 사상.

크리크(Kriek)는 교육사회학 발달과정은 교육을 사회적 동화 과정으로 규정한다. 듀이(Dewey)는 교육사회학 발달과정을 교육과 사회학의 관계를 강조했다. 뒤르껨 (Durkheim)은 교육사회학 발달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 그는 교육에 관한 활동 구분으로 교육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교육의 실제적 방법을 위한 교수학으로 교육의 실천적 활동을 했다. 그리고 교육사회학의 연구영역으로 교육에 관한 사회적 사실과 사회적 기능 밝히는 일과 교육과 사회 및 문화변화 간의 관계 밝히는 일 그리고 교육체제의 유형을 비교문화적 및 비교학적으로 연구하였다. 또 살아있는 사회체제로서의 학급과 학교를 탐구하였다. 교육에 있어서 성장세대는 성인들의 본보기적인 신앙적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러한 자질형성에 도움을 입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독교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소망과 자질을 배양 받아야 할 것이다.[28]

---

[27]http://blog.naver.com/suandth?Redirect=Log&logNo=120117506836

[28]정일웅, *교육목회학*,(서울: 솔로몬,1993),205

스잘로(Suzzallo)는 교육사회학 강의를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개설하였다. 스미스(Smith)는 교육사회학개론 저술하여 교과서로 사용했다. 꽁트(Comte)는 사회학의 아버지로서 기능주의의 기초를 형성 했다. 스펜서(Spencer)는 사회유기체설 주장하였으며 기능주의의 기초 형성에 이바지했다. 뒤르껨(Durkheim)은 기능주의 사회학자로 근대사회의 등장과 전통사회를 해체하였다. 그리고 도덕적 개인주의 주창하였으며 국가의 도덕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 교육은 도덕적 자율성 계발에 초점을 두고 도덕적 모범 및 환경의 제공과 필요를 주장하였으며 체벌에 반대하고 교육기회의 평등화를 주장하였다.

빠레토(Pareto)는 이태리 사회학자이며 기능주의의 학자이다. 파슨즈(Parsons)는 사회체제이론으로 구성요소를 문화체제, 사회체제, 인격체제, 행동적 유기체로 설명하였다. 사회체제의 특성은 상호의존적, 계속적 작용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상위체제의 하위체제라는 것이다. 사회체제의 기능은 적응적 기능, 목표달성 기능, 통합 기능,유형유지 기능이며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내면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고 역할사회화를 중시하며 동료집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인문주의는 본질적으로 교양과목의 개혁에 근거하는 교육적 문화적 운동이었다.[29]

마르크스(Marx)와 베버(Weber)는 는 갈등이론의 기초를 형성하였고 보울즈(Bowles)와 진티스(Gintis), 렌도르프(Dahrendorf), 코저(Coser)는

---

[29]Alister McGrath, *종교개혁사상*,최재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2006),109.

갈등이론의 대표적 학자이다. 그들은 학교의 두 가지 역할을 자본을 축적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생산하는 것과 노동을 이윤으로 바꾸는 신념 기질, 가치, 태도를 재생산 기능으로 보았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은 무엇보다 먼저 성장세대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이해에 따라 기독교 신앙의 삶의 가치들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30]

영(Young)은 신교육사회학의 발달 주도하였다. 그는 '대안적 시각'엔 관한 논문을 편집하였고 교육사회학을 지배해온 사회계층과 교육기회에 관한 연구를 비판하였다. 번스타인(Bernstein)은 신교육사회학의 발달 주도하고 사회언어학적인 시각에서 학교교육을 아동의 언어와 관련시켜 연구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워너(Warner)는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인 지위특성지표 제시, 사회계층의 결정요인으로 직업, 가옥 형태, 거주지역, 수입액, 소득원, 교육수준을 제시했다.

홍두승 교수는 계층의 구성요인을 3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객관적 조건과 객관적 위치에 따른 주관적 인식과 인지적 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계급행동 또는 계층행동이라는 것이다. 워너(Warner) 는 사회계층과 교육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교육에 대한 태도가 다르며 자녀 진학 등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성, 사회적 행동 배후에는 사회계층의 배경이 존재하고 학교 교육정책과 교사의 학생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계층적 차별 볼 수 있으며 학교는 사회계급에 있어서 사회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

[30]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 솔로몬,1993),282.

맥커버(Macelever)는 사회변동의 요인을 세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자연적.생물적 요인으로 인류 생존에 영향을 주며 둘째 기술적 요인으로 인간생활에 혁명적 변화를 주고 셋째 문화적 요인으로 사회의 문화적 기반이 사회 변동의 요인이라고 한다. 호톤(Horton)은 사회 변동의 과정을 발견, 발명, 전파로 바라보았다. 발견은 기존의 사실 또는 관계에 대한 인지작용이며 발명은 문화의 낡은 요소의 새로운 사용이고 전파는 문화특성이 전파 또는 보급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머어릴(Merrill)은 사회 변동의 순서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기술, 경제기관, 사회기관, 사회적 가치의 순이다.[31]

[31]http://blog.naver.com/suandth?Redirect=Log&logNo=120117506836

Ⅲ. 이민교회 교육 목회의 중요성과 미주 한인교회의 성장.

오늘날 미국내 한인이민교회의 상황을 일반적으로 4,096 개교회, 한인 347 명당 한 개의 교회라고 한다.[32] 이것은 2011 년 12 월 1 일 기준 통계이다. 어디를 가나 교회는 곳곳에 서있고 또한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교회가 많은 만큼의 호평을 듣기는 어렵고 기독교인들이 증가한 만큼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된다. 오히려 교회를 향한 지탄과 차가운 눈초리만 더해가는 것을 쉽게 찾아보게 된다.

한편으로 13 년 동안 이민교회 일을 해오면서 체험하고 부딪치는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상태를 살펴볼진대 확실한 구원관이 결여되어 있으며, 체계화된 신앙관이나 생활관이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2011 년도에 본 뉴욕 갈릴리교회에서 등록한 교인중에서 15 명에게 신앙상태를 확인해 보았더니 구원관(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죄사함의 확신이 있느냐?, 영생에 대해서)이 불확실한 사람이 8 명이나 되었고 확신은 4 사람, 대답 못하는 사람이 3 명이나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전도를 나가서

[32] 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19600§ion=section12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신앙상태를 볼 때에 구원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신앙관등이 미흡하거나 정립이 안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보편적인 이민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첫째로 믿음의 견고성이 약한 것을 보게 된다. 믿음의 견고성이 약하다는 것은 말씀에도 약하며 반면에 감정이나 여건에 많이 치우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하기에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에 미혹을 많이 받게 되고, 뿌리 없는 나무같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의 지속성보다는 일시성, 충실성 보다는 기복주의, 한탕주의 등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이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믿음의 생활화, 또는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입으로 만의 믿음이라고 할까 입으로는 '믿습니다' '아멘'을 잘하는데 이렇게 믿고 고백한대로 생활 속에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성도자신은 떳떳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내지도 못하며, 이웃과 사회에서는 지탄이 날로 더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으며, 확신과 구체성이 약하므로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못하는 고로 삶의 열매가 빈핍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부터 10 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연구하던 중에 교육목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이민 교회 교육 목회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교회교육이라고 하면 교회학교를 연상하게 된다. 교육목회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전에 교회교육은 교회학교를 통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목회라는 개념이 사용된 이후에 교회교육에 대한 의미가 곧 교회학교 식의 교육이라는 그 개념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기독교 교육을 학교식 교육기관(교회학교)을 통하여 표현되는 교회목회의 일부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육목회에서의 교회교육은 교회전체, 목회전반에 관계되는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전체의 차원을 무시해 버리고 교회학교에 국한된 교회교육의 의미로는 교육목회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회교육을 교육목회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교육행위라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실천신학의 학문적 범위 설정의 이론에서 보면 그는 교육적 과목, 다스림의 과목, 봉사적 과목, 평신도 과목 등 4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을 바로 교육적 과목으로

분류하였다.[33] 교회교육을 통한 교회성장을 연구함에 있어서 교육목회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한다. 여기서는 교육목회의 이론적인 기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와 복음은 우리들의 교회에 교육목회의 쇄신을 명령적이요, 긴급한 일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교육목회(Educational Ministry)는 교회의 본질적인 차원과 교회의 목회적 기능 그리고 선교론적 입장에서 대두되는 현실적인 요청이다. "교육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일이다. 따라서 그 기능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불가결의 요소를 잃어버린 교회인 것이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지 않는 교회나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는 교회가 결함 있는 불완전한 교회인 것 같이 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교회도 결함을 지닌 교회 일 수 밖에 없다."

교육을 단순히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의 기능 중에서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목회를 구상하고 구현함에 있어서 교육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목회를 해나가야 할 시대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목회의 필요성을 거부해서는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 또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래서 부단히 배움을 요구하는 학습사회에서의 효율적인 목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것이다.

교육목회는 전통적인 교회교육의 틀을 벗어난다. 교회의 교육활동의 범위들은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주일학교 교육활동의 범위는 주로 주일

33정성구, *실천신학개론*(서울:총신대학교 출판부,1996),27-28.

하루에 국한된 교육활동을 해왔다. 교회학교 교육시기에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게 되었다. 주일 하루뿐 만 아니라 주간에도 계속적인 교육적 배려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교육대상의 범위도 확대되어서 국민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등의 영역에 제한 되다시피 했던 범위가 성인을 위한 교육적 활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목회의 차원에서 볼 때 교육활동의 대상 및 범위는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되게 된다. 따라서 교육목회 시기에는 교육이 교회의 여러 수행기능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교육적 차원으로서의 목회구현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는 교육활동의 영역이 목회전반에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득렬 교수는 교육목회를 가리켜 "목사의 목회적 기능을 교육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서 교육목회의 구성요소를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교우들의 형편에 입각한다. 셋째, 구체적인 방법을 지향한다. 넷째, 교육목회의 용어, 즉 교육목회에서 사용되는 용어, 언어는 "말로 된 언어"와 "관계로 된 언어"의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병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모이는 교회'뿐 아니라 '흩어진 교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르침의 직무 즉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34]

---

[34]Lbid.,109.

사실 과거에는 회중의 교육목표가 아주 표준적으로 분류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주일학교라는 말로 단순히 윤곽을 그릴 수 있었고, 거기에 과외시간(Additional Sessions)의 교회학교, 휴가 교회학교, 주일저녁 친목회, 가정예배 등 다른 표현들이 더해졌다. 그러나 교회는 그 교육적 활동에 있어 보다 더 큰 연합과 다양성과 융통성이 요구됨을 인식하여 이에 응답하게 되었고, 이 활동을 하나의 목표와 방향이 있는 목회로서 계획을 시작했기 때문에 목회의 다양한 형태들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 요청되었다. 이런 견지에서 미국 감리교 교육국에서 펴낸 교육목회 지침서에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요소들을 진술하고 있다. 1)교육목회도 목회이다. 2)교육목회는 자연적으로 발달된다. 3)교육목회는 전인을 위한 것이다. 4)교육목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5)교육목회는 평신도에게 선교를 위하여 무장하게 한다. 6)교육목회는 전체회중의 목회이다. 7) 교육목회는 에큐메니칼 목회이다. 8)교육목회는 체계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교육목회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이론들은 교육목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교육목회를 구현함에 있어서 준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목회를 위한 기획활동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교육목회란 두 가지 즉, 교육과 목회라는 초점을 두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정웅섭교수는 교육목회는 교육을 목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을 해나가는가(Ministry for Education)와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교육의 빛 아래에서 목회를 해야 하지 않는가(Educational Ministry)하는 문제가 초점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목회란 목회적 사역이 교육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고 참여하는 기술이라고 할 있는 것이다.

교육목회가 교회의 본질적 차원과 교회의 목회적 기능 그리고 선교론적 입장에서 대두되는 현실적 요청이라고 한다면 교육목회의 이론적 기초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고용수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성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Body of Chris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살아있는 몸이라면 그것은 계속 움직이고 성장을 위해 변화해 간다. 따라서 건강유지와 성장을 위해 교육의 배려가 필수적이라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이해는 교육이 교회의 본질에 속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둘째, 교육목회의 이론적 근거는 교육목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설명된다. 목회가 목회다워지려면 그 지혜는 교육에서 얻어야 한다.[35]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적인 목회의 성격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장'으로 이해되어 왔다. 옛날의 목장은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목장의 구조와 형태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목회구조와 형태는 옛날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의 요청에 직면해 있다.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사는 현대의 기술사회는 고도의 전문화된 복잡한 생활형태로, 삶의 다양한 욕구가 각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천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인간을 돌보는 목회의 구조와 형태는 옛날의 주먹구구식 방법과는 달리 보다 더 합리성 내지는

---

[35]정일웅, *교육목회학*,(서울: 솔로몬,1993),113.

과학성이 요청된다. 이는 곧 기능적 차원에서 교육적인 목회를 요청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셋째, 교회의 선교적인 차원에서 교육목회의 이론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신학 이해에서 본 교회관은 방주의 기능 즉, 구속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강하게 강조되었다. 그러나 1960 년 이후 '세속도시'의 출현과 함께 교회의 전통적인 구조에 대한 도전에서 파생된 새로운 이해(구조선)와 교육의 선교로서 접근은 교육목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구조선'으로서의 교회이해는 구속의 공동체로서기 보다는 선교공동체, 또는 사명공동체로서의 평신도 훈련을 포함한 미래교회의 교육적 기능에 더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안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지금까지의 '구심적'인 교회교육이 '원심적'인 선교의 구조 속에서 역사 참여의 창조적 기독교인 육성이라는 교육적 관심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즉 선교는 기독교의 대 지상과제이지만 목회사역은 선교 그 자체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36]

결국 교육목회의 이론적 기초를 고용수 교수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 목회적 기능, 그리고 선교적 차원이라는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목회의 개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역의 범위, 방법적 인면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교회 교육의 벽을 과감히 뛰어 넘는다. 그리고 보다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이며, 전체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지향한다.

---

[36]Lvid.,117

교회가 여러 시대를 걸쳐서 성장 발전되었다고 할 때 항상 두 가지 면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것은 변화하지 않아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결코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다른 단체로 전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꼭 변화시켜야 할 것을 변화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교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기능이 둔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이며, 아울러 수용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의 마르틴 루터가 새로운 갱신의식을 가지고 카톨릭에 도전했을 때 카톨릭교회가 만약 수용의 태도로 루터의 갱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결코 교회는 분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스 킹은 이야기 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37]

"교회갱신"이란 영어로 "Church Renewal"이다. Renewal 이란 말에서 New 는 새롭다는 말인데 Renew 는 "다시 새롭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 진다"는 뜻이 된다. 맹용길교수는 그의 저서 에서 개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셋으로 구분했다. 개혁이란 첫째, 낡은 것을 변형시키는 것(transformation)을 뜻한다. 즉 낡은 것의 방향을 돌이켜(conversion)새로운 현실(reality)로 바꾸는 것을 의미 하는데 질적 변형도 동반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약성서의 회개와 일치한다. 즉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라 삶 전체에서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둘째로 개혁이란 낡은 것을 변형시킨 후 반드시 새로운

[37]Siegler,F.M.,*Christian Worship*, *예배학 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출판사,1984),74.

것을 일으켜야 한다. 만일 낡은 것의 변형에서 그친다면 귀신이 있던 집을 깨끗이 정리해 놓은 것과 같은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새로운 현실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개혁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진(reformed) 객관적인 현실성으로 사회적 결속을 갖는 일치(unity)에로 가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학문적 관계 속에서도 실천신학의 과제 곧 교회를 중심 하여 이루어지는 목회사역도 교육에 기초하지 않고는 안될 실정에 처에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학문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교육목회가 교육 즉, 기독교 교육에 기초해야 한다.[38]

교역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양무리의 목자이다. 그러므로 교회갱신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김형태목사는 교역을 세가지 큰 타성 속에 타락될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세가지를 보수성, 제도성, 그리고 직업성이라 하였다. 첫째 보수성은 기독교의 한 특징이다. 종교의 본질에 가치보존이라는 것이 있다. 기독교의 교역에서도 가치보존의 기능을 나타내는 가운데 과거 유산을 지킨다는 전통보수의 경향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종교적 특징 속에 가치창조의 기능도 아울러 중요시해야 한다. 기독교의 교역에 있어서 가치창조의 기능이 약화된 가치보존의 역할기대는 그 공동체의 퇴보를 의미하게 된다. 가치보존의 기능이 가치창조의 기능과 균형을 갖추지 못 할 때 독선주의 또는 나아가서 율법주의적 형태의 타성에 빠지게 된다.

---

[38]정일웅, *교육목회학*,(서울: 솔로몬,1993),350.

둘째 제도성이라는 것은 조직 사회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다. 어떤 사회나 질서를 위해서는 직제나 조직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 자체의 유지를 위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 집단이라고 할 때 선교라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직과 제도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자체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노력도 기울이게 된다. 세계를 위한 봉사(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위한)라는 기본 사명이 흐려지면서 기독교는 기관화되고, 제도화되며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자체의 비대화로 인한 생명의 위축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복음이 제도 속에 포로가 되어 버리고 만다. 청소년 교육의 중심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르침이 중심을 이룬다.[39]

셋째 직업성은 교역에 있어서 또 하나의 위험한 타성이다. 누구나 자기가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열성을 가지고 일과 기관에 충성해야 한다. 거기에 발전이 있고 향상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직업적 타성에 빠질 우려도 충분히 있다. 직업적 타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업을 위한 경쟁이다. 지나친 열성이 질서를 깨뜨려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기 쉽다. 또 한가지는 직업에서 오는 실증이다. 한 직업에 오래 종사함으로 오는 권태와 기교이다. 감격이나 열의가 식어지고 늘 하는 버릇으로 기교를 부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역자들이 교회정치에 흥미를 갖게 되는 동기가 나오기도 한다. 여가활동의 기회로 정치작용에 가담하게 된다.

---

[39]Lbid.,359.

교역자는 이와 같은 기독교적 교역에 있어서 받기 쉬운 유혹들로 부터 탈출하기 위해 교육목회를 착실히 해 나가야 한다.

박아론은 그의 강연 집에 목회자의 직무를 넷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감독의 직무, 둘째는 가르치는 직무, 셋째는 자라게 하는 직무, 넷째는 유기관리의 직무를 들고 있다. 중 가르치는 직무와 자라게 하는 직무는 교육목회와 직접관련이 있고 감독의 직무와 유기관리의 직무도 교육목회와 간접관련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제자들이다.[40]

고용수교수는 오늘의 교회를 말할 때 옛날 방주라고 했던 단순한 개념에서 구조선이라고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렇다고 할 때 전 교우가 선교공동체 내지 사명자, 또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은 구명대원(선교적 역군)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평소에 훈련된 자만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다. 선교를 전쟁에 비유한다면 평신도들은 가장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변동되는 사회 속에서 항상 경제적 위기, 질병의 위기, 유혹으로부터의 위기, 죄로부터의 위기, 죽음에 대한 불안 등등이 엄습할 때 잘 훈련되고 무장된 자만이 이겨 나갈 수 있다. 교육이란 훈련이 없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다.

---

[40]Lbid.,367.

반피득은 그의 저서에서 교회교육의 두 가지 점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로 교육은 채워주는 과정(infilling)이다. 이것은 그의 이념을 형성해 주는 것이다. 평신도로 하여금 신의 계시를 알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여 경제적 위기로부터 해방, 질병으로부터 보호, 유혹으로부터의 지키심, 죄로부터의 용서,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게 해야 한다. 둘째로 교육은 이끌어 내는 과정으로 가지고 있는 재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독자적 생활 방식을 수납하는 것이라 하였다. 신도가 예전에는 모든 자기의 문제를 타인에 의해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성서를 알고, 깨닫고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스스로 어려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주체 신앙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그가 처한 교회에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일원이 되어야 한다. 성숙한 신앙의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스스로 구별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진리의 비판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었다.[41]

맹용길교수는 말하기를 교회 주체는 절대다수인 평신도들이다. 교회의 생활과 역사를 제시하는 것은 지도자들이나 교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을 형성하는 것은 평신도들이어야 하며 평신도는 삶의 현장을 직접 이끌어가는 주체이며 교회와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계속해서 맹용길교수는 평신도 교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신도교육은 첫째로 방향정위(方向定位)의 의미가 있다. 즉 자신의 현존재를 발견하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삶의 방향을 정하게

---

[41]정일웅,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서울: 로고스연구원 3 판, 1991),46.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향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이며, 혹은 알았다 하더라도 확실히 몰랐던 사람에게는 그 방향으로 굳히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평신도를 위하여 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교육체제설정과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둘째로 해야 할 책임을 느끼게 하는 의미가 있다. 즉 신도들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선 알고 경험할 때에 그 존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느끼게 된다. 자기의 존재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정체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셋째로는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다. 즉 교회에 알려진 계시의 내용을 신학이 정리해 교육함으로써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이다. 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것을 평신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체계화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것을 알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평신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교육이 없다면 평신도들은 지신의 존재의 의미나 해결할 사명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임택진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안에서 새 언약의 관계를 맺은 평신도의 교육과 훈련에 주력해야 한다.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이다. 목회자는 훈련소의 교관이며, 신도는 군인이다"라고 하였다.

2. 한인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

교회성장의 시작은 초대교회에서 찾아야 하겠고 교회 성장의 확고한 성서적 근원도 하나님 자신이 성장의 원인이라는 바울의 선언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교회성장이 학문적으로 태동하게 된 역사는 1966 년 제네바에서 열렸던 '교회와 세계' 대회를 전후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복음주의 운동이 같은 해 제네바에서 "세계 복음 대회"에 뒤이어 1969 년 미국의 미니에폴리스(Minieapolis)에서 모였던 "미국 전도 대회" 같은 모임이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교회선장이란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한 것은 맥가브란의 사상에서 처음 나온 용어이다. 이후 30 여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경험을 토대로 연구를 계속한 결과 1955 년 하나님의 다리를 판하였는데 이것이 교회 성장의 효시가 된다. 교회 성장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삼아 복음의 사회적 책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42]

맥가브란이 인도에서 30 년 동안 있으면서 1950 년대 자유주의적 선교사들이 선교를 고전적인 정의에서 이탈시켜 비성서적으로 정의하는데 혐오감을 느끼고 성서적인 선교개념을 강조하는 운동을 제창하면서 '전도' 혹은 '선교'라는 전통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였으나 이러한 용어들이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꼭 맞는 말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 결과로 평범한 두 개의 말, 즉 '교회'와 '성장'을 결합하게 된 것이다.

[42]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 솔로몬,1993), 16.

그래서 지금은 전문적인 용어가 된 이 교회성장은 독립적인 술어가 되었다. 교회성장이란 용어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교제를 가지도록 해주며, 책임 있는 교인이 되도록 해주는데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교회성장은 미묘한 것이다. 교회성장이란 곧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적 확대이며, 그리스도 사역의 계속적인 확장을 듯하고 그 나라의 의와 그 의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 하여 교회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효과적인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행동하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다.[43]

또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은 곧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며, 서 충성심은 신학과 충실한 성경적 근거에서 발생한다"는 속에서 알수 있듯이 교회성장은 신학과 성서적 배경 및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회성장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 교회성장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회성장학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교회성장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성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묘사한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친히 설립하시었고 그 머리가 되시며,

---

[43]Paul G. Hiebert,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김영동,안영권 공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1999),210.

부활하신 후 성령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에 기초한다. 이 약속은 성서 속에서 그의 듯이 분명하게 계시되고, 이 계시된 사실은 신학적 해석을 통하여 진의를 드러나게 된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우리 모두의 행동에 완전하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44]그러기에 교회의 성장은 성서적 계시와 신학적 방법에 근거할 때 정당화되고 하나님께 대한 성실성의 의미도 찾게 된다.

---

[44]Chrles H.Kraft,*기독교 커뮤니케이션*,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2001),126.

Ⅳ. 교육목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 규정된 인간의 위치와 역할은 '관계성' 안에 자리하고 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worship), 인간과의 관계(partnership), 자연만물과의 관계(stewardship)의 질서를 의미한다. 죄란 '관계의 단절'이요 타락이란 '관계의 상실' 곧 분리 상태를 의미한다. 기독교 복음이 증언하는 구원이란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목회(ministry)란 하나님, 인간,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종의 '관계 형성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목회 위기는 한마디로 '분리현상'으로 요약된다.

즉 신앙과 생활의 분리, 신앙과 신학의 분리, 목회와 교육의 분리, 성직자와 평신도의 분리 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분리현상'으로 인해 목회 현장은 편협한 신앙(기복신앙)과 왜곡된 영성(위선적 영성, 반지성적 영성, 역사 도피적 영성)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기독교 복음의 대 사회적 영향력의 축소와 신자 개개인의 '신앙과 생활 현장 사이의 불일치' 현상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오늘의 이민교회의 문제는 주일예배자의 수는 많지만 월요일 신자는 적고(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결여), 신앙의 수직적 차원의 강조와 함께 상대적으로 수평적 차원의 관계들을 소홀히 함으로 인한 '회중성'의 부재(공동체 의식의 결여), 그리고 개인적 무속적 신앙행태(역사의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이웃과 사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외면하는 일종의 종파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위험스런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콜만(John Colman)은 오늘의 기독교교육위기를 '제자직(discipleship)과 시민직(citizenship) 사이의 분리'로 이해했다.

1. 교육 목회를 어렵게 하는 용어들은 무엇인가?

'목사'라는 직명과 리더십의 정체성 문제이다. 김득렬 박사는 최근의 그의 저서"은총의 교역-목사:목자와 교사"에서 "직명은 그가 지닌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한다."고 전제하고 에베소서 4:12 의 내용 중 개역성경(1964 년판)에서 목사(牧師)의 명칭을 지니는 이와 공동번역(1977 년도판)에서처럼 목자(牧者)의 명칭을 지니고 목회하는 이와의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즉 목자는 목양적 문화에 따라 양무리 앞에서서 양들을 인도하는 수평적 관계로 향하는 반면,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목회하는 이는 스승 사(師)의 문화에 따라 가르침 받는 이들의 위에 서서 수직적 관계로 권위적인 목회를 하기 쉬울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45]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목사'라는 직명에 사용된 스승 '사'(師)자에 악센트를 부여하다 보니, 그것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적인 동양의 전통적 권위체제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신학적 해석까지 첨가된 권위주의적 위상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되는 코이노니아를 토대로 한 유기체(그리스도의 몸)적 교회 이해를 체득하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요 13:13-15) 제자들에게 '선생'(師)의 참 뜻을 '발을 씻기는 극적인 방법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목회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목자적 교역'(요 10:1-15)의 소명을 일깨워 주었다.

전통적인 '목회' 개념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이 교육목회의 기본 틀의 자리매김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교육목회란 종래의 목회구조 속에서 가르침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편협한 사고가 통전적인 교육목회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컨대 교회학교에서 부서별로 성경을 가르치는 디다케(didache)에 초점을 두고 교실수업개선(교사훈련, 교재개발, 교수방법 및 교실환경 개선 등)에 특별한 교육적 관심을 두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교육목회와 동일시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교육목회의 갱신은 교역(ministry)의 패러다임의 성경적 인식전환으로부터 착수되어야 한다. 그것은 목회자들의 '목자적 정체성' 확립과

---

[45]김득렬, *은총의 교역-목사 : 목자와 교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11-25

팀(team)사역의 제자리를 찾기 전에는 균형 있는 교육목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편협 된 '신앙' 이해 문제이다. 신앙(faith)은 교육목회의 중심 개념이다. 교육목회의 모든 노력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두고 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강조하므로 인해 신앙 인격형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최근의 기독교교육이론에서 신앙의 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단일 표면의 평면적이기보다는 몇 가지 측면으로 형성된 입방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공통점이 있다. 예컨대 토마스 그룸의 경우 ①지적인 신념으로서의 믿음(faith as believing), ②신뢰적인 믿음(faith as trusting), ③행위로서의 믿음(faith as believing)등 세 가지 측면으로 신앙을 정의했고(1980), 리처드 R 오스머는 신앙개념을 ①지적으로 믿는 믿음(faith as belief), ②관계로 된 믿음(faith as relationship), ③헌신하는 믿음(faith as commitment), 그리고 ④신비로움에 대한 믿음(faith as mystery) 등의 4 면 입방체 모양으로 설명했다.(1992)

이같이 신앙을 인간의 총체적 응답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신앙의 균형 있는 이해를 위해 신앙이 지닌 요소들과 관련해서 마리아 해리스는 예배(leiturgia), 말씀의 선포(kerygma), 가르침(didache), 교제(koinonia), 섬김(diakonia)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임스 파울러는 논리(logic),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 관점채택(perspective taking), 권위의 출처(locus of authority), 사회인식의 테두리(boundary of social awareness), 세계관(world coherence),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엘리스

넬슨은 문화전달 과정의 사회와 이론에 기초해서 신앙 교육을 일종의 '형성과정'으로 설명했다.

즉 세계관과 관련되는 지각체계(perceptive system)가 형성되고, 가치체계(value system)에 따른 양심을 형성하고, 그리고 사회집단 속의 인간관계로부터 자아-정체감(self-identification)을 형성한다. 이같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교육 학자들은 신앙교육의 평생에 걸친 성장(성숙)에 관심을 갖고 신앙 교육을 단편적이질 않고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이 되도록 도와준다. 예컨대, 존 웨스터호프의 신앙 유형(경험적인 신앙, 지속적인 신앙, 탐구적 신앙, 고백적인 신앙 등)이라든가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의 여섯 단계 이론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에 의하면, 신앙은 전인적인 응답이며 이는 평생에 거쳐 질적 성장을 거듭하는 역동적 현상이기에 명사적 개념(faith)이라기보다는 신앙을 동사적 표현(faithing)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육목회의 중심 개념인 '신앙'에 대해 일평생 성장(성숙)에 따른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고 단편적인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목회의 기초에서부터 흔들릴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교육구조의 문제이다. 교육을 일종의 '구조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의 교육목회의 정체위기는 현존하는 교회의 교육구조에서 문제를 찾게 된다. 현행 한국교회의 기독교교육의 구조는 목회(성인중심의 교역형태)와 교육(미성년 층 중심의 주일교회학교 수업형태)의 이분화 체제 운영으로 인해 교회교육을 주일 교회학교와 동일시해서 기독교교육의 범위(교육구조)를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 목회의 분리현상의 치명적 위기는 양쪽 다 공동체 성(회중성)을 상실할 위험에 놓이게 한다.

목회구조와 달리 학교 식 교실수업 형태로 탈바꿈한 교육체제는 "교회학교"라는 이름의 조직 내지 기구의 운영은 가능하나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공동체(회중성)가 없기 때문이다. 성인을 위한 목회자의 목회적 돌봄은 예배설교와 심방, 그리고 교회행정에 분주한 나머지 신자 개개인의 책임 있는 제자육성을 돕는 교육사역에 전문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2000 년 교회역사에서 주일학교가 교회의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불과 200 여년 밖에 안 된다. 주일학교 설립 이전에도 교회는 신앙공동체의 존재 양식으로 교육이 있어 왔다. 샤비키(M.Sawicki)에 의하면, 원시교회 당시 기독교교육은 말씀의 선포(Kerygma), 가르침(didache), 치유와 교제(koinonia), 예배와 성례전(leiturgia), 그리고 섬김과 봉사(diakonia)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같이 기독교교육은 본래 신앙 공동체 생활의 전 영역을 통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경우, 1 세기 전 교회의 주일학교 초기에는 전 교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성인들의 성경공부는 목회구조(교역형태)속으로 자리했고, 주일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구조(학교체제)로 분리해서 운영해오면서 차츰 교회에 속한 한 부속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웨스터호프의 비판처럼 "학교"라는 세속기관의 교육체제가 교회 내 기독교교육을 감금함으로 인해 주일교회학교는

신앙공동체가 지닌 교육의 힘(역동적이고 형성적인 힘)을 잃어 버렸다. 거기에다 교회학교 현실은 현대와 같은 교육경쟁시대에 교육투자에 인색하여 복음을 담아야 할 부대가 새 것이 아닌 낡은 것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비전문적으로 운영해 옴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현실적 매력을 잃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 교회학교는 양과 질에 있어 크게 감퇴현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 식의 교육구조 하에 운영되고 있는 오늘의 주일 교회학교의 문제는 (1)훈련 받은 전문 교육지도자가 없는 학교 식 운영 체제, (2)복음적인 열정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결여 된 교사의 봉사, (3)다중매체(multimedia)의 새 바람에 끌려가는 신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매력과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는 기존 프로그램과 교육기자재, (4)교회학교와 지원체제(교회와 가정 그리고 기독교 학교)간의 협력관계의 단절현상 등이 교회학교의 감소율에 크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사의 자질, 교재(학습자료), 교육환경(시설, 장소, 시간 등), 교육행정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학교 식 교육체제에 의존해서 유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주일교회학교가 기초한 학교 식 수업구조는 오늘의 기독교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분리'(신앙과 생활, 제자 직과 시민 직의 분리)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웨스터호프는 학교 식 교육구조 안에서 "수업"이라는 교수형태로 진행될 때 기독교 교육자들의 관심은 교수 – 학습 진행, 교재 등에만 묶어놓게 되어 결과적으로 교회교육의 여러 가능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비판하면서, 학교 식 - 교수형태(schooling - instructional paradigm)를 모방한 교회학교중심의 교회교육은 종교교수(teaching religion)와 신앙교육(educating in faith)사이의 차이를 동일시 해 왔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약하건대, 교회의 학교 식 교육구조는 전인적 신앙교육이 어렵고, 더욱이 21 세기 기독교교육이 직면할 현대성의 도전(분리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한 교육구조라는 점이다. 기독교 교육은 처음부터 평화를 위한 교육이었다. 그 이유는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그가 이루신 평화를 경험하며 그와 더불어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도록 도우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46]

2) 교육목회의 내용.

교육 내용의 문제이다. 교회교육의 구조에 있어 목회와 교육의 이분화 체제는 교회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내용의 지속성, 연계성, 그리고 통합성에 기초한 교육과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모든 인종과 문화를 포괄하는 전 세계 역사를 향해서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에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

[46]정일웅, *교육목회학*,(서울: 솔로몬,1993),96.

이를 요약 정리하면, 내용 범위란 기독교 복음이 관련을 맺는 경험의 모든 차원, 즉 신적, 인간적, 자연적, 역사적 차원이라는 구조를 지닌다. 교회교육의 내용 범위는 “복음의 빛 안에서 인간이 갖는 관계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범위가 개인(자의식), 개인이 속한 공동체(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세계(역사)를 통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등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의도적 행위(교육)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의 영역은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의 물음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회는 어떻게 회중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자각하게 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계속 영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도울 것인가? 이 질문은 개인의 ‘자의식 개발’의 영역이다.

둘째 교회는 어떻게 회중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됨을 자각하게 하고, 공동운명체로서의 공감대 형성과 지탱 그리고 발전함에 있어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도울 것인가? 이 질문은 신자의 ‘공동체 의식’ 개발 영역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셋째 교회는 어떻게 회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생활의 현실 속에서 삶을 통한 역사 창조의 사역에 부름 받고 있다는 소명의 자각과 함께 책임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인가? 이 질문은 신자의 ‘역사의식’과 현실참여의 능력개발과 관련된다. 선교는 기독교의 대 지상 과제이지만 목회

사역은 선교 그 자체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선교란 목회적 차원에서 볼 때 목회 사역(교회) 내면의 부분적 기능으로 생각해야 한다.[47]

위의 질문에 관련된 내용범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설정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교육에서 교육과정의 내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역화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신앙 표현의 영역 전체를 구조화한다. 따라서 신앙 경험을 토대로 설정하는 교회교육의 내용 범위 속에는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삶의 경험을 주관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개념이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교회교육의 내용 범위는 교실 안의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업(instruction)을 통해서 얻어지는 학습경험만이 아니라 교회생활의 전 과정에서 얻어지는 신앙 경험을 토대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생활이란 곧 신앙생활로 이해된다. '예배와 예전'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참여자간의 새로운 만남(신앙의 정체성)과 대망(연대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의 선포'와 전도에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분별하게 된다.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성숙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교제와 친교'에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경험할 것이고, '섬김과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배와 예전(leiturgia), 가르침과 훈련(didache), 말씀선포와 전도(Kerygma),

---

[47]Lbid., 117.

교제와 친교(koinonia), 섬김과 봉사(diakonia) 등 교회생활 속에서 표현되는 다섯 가지 영역을 내용구조로 삼고 교육목회적 관점에서 각 영역별 신앙 경험 활동을 구조화해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자기 사명과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48]

교육의 장(Context) 문제이다. 21 세기 교육목회는 지금까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오고 있는 교육의 장인 교회학교를 포함해서 가정, 학교, 사회, 멀티미디어와의 보다 긴밀한 유기적 관계 안에서 각기 교육의 장이 지닌 역동적이고 형성적 힘(formative power)을 구조화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교육의 장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목회 문제는 교육의 장에 있어서 교회와 교회학교, 교회와 가정, 교회와 학교, 그리고 교회학교와 사이버 공간간의 관계의 네트워크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는 데서 통합적인 교육체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속에 소외 계층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상대적 빈곤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며 교회의 소외계층이 한층 더 생겨나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49]

평신도 사역의 중심 센터가 되고 있는 가정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교회는 성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가정사역을 위한 전문 부서를 두고 전담 교역자를 두어서 가정과 함께 하는 교육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한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 소규모의 작은 교회(cell church)로 세워질 때, 교회의

---

[48]Lbid., 203

[49]김병서, *한국사회 변동과 기독교 백년* (서울: 기독교 사상 12 호, 1984),31.

목회활동들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교회가 확대된 하나의 큰 가정으로서 신앙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교육목회 차원에서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사역 자로서의 신적 소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성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정과 함께 하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은 행복한 부부관계, 유능한 부모 역할, 건강한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워크숍 중심의 교육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21 세기 교육목회는 교회와 학교간의 상호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오늘의 교회가 학생들에게 하나님 중심 세계관 형성을 위해서는 교회학교만의 기독교교육이 불충분함을 인식한다면 21 세기 한국교회는 교회와 학교간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기독교 학교의 모체였다. 고대 이스라엘의 학교교육은 회당에서 출발했고, 중세 대학의 시작도 교회에서 비롯되었다. 오늘의 파리 대학의 모체는 중세 노틀담 사원이다. 미국 학교교육 제도의 전신은 교회 주일학교이다.

근세기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명문 대학들이 모두 청교도 신앙을 미국 대륙에 심으려고 하던 개신교회들의 의지에 의해 세워졌다. 한국의 기독교 학교의 시작도 마찬가지이다. 초기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학교(mission school)가 그러했고, 해방 이후에도 교회는 설립자와 후원자로서 기독교 학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독교학교를 철저히 옹호하고 지원했다.

지난 1969 년 문교부의 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에 기초한 교육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당시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가 연합해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와 같이 교회와 기독교 학교간의 상호 협력관계가 다가올 21 세기의 역사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학원목회를 위한 상설기구의 설립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선교는 개교회의 책임이기보다는 교단적 차원에서 관장되고 대처해야 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과제이다.[50]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서 사이버 공간을 들 수 있다. 21 세기는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취하여 이용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사이버 세계는 세계를 하나의 그물망으로 엮는 큰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장, 가상적인 장을 만든다. 그러므로 교육목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이미 도래해 있는 멀티미디어를 통한 가상의 공간을 교육의 장으로 분명히 인식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안목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 오는 이 교육의 장을 기독교교육을 위한 건전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지도자 문제이다.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는 오늘의 한국교회 역시 심각한 위기로 진단된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권위체계는 올바른 리더십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나 오늘 권위자(지도자, 목사, 교사, 부모)들에게 직책과 힘은 있지만 더 이상 진정한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50]정일웅, *교육목회학*,(서울: 솔로몬,1993),157.

분위기가 심지어 교회내부에 까지 미쳐서 교회 안의 교회학교 교사는 물론 목회자의 권위까지도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권위가 붕괴되는 일차적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탐욕과 교만에 이끌리어 자기 마음대로 남용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맥스 드프리(Max DePree)에 따르면 리더의 첫 번째 책임은 자기 조직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다.[51] 그 결과 인간관계의 질서가 오염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질서체계까지 파괴하려는 반항의 시대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21 세기 교육목회의 과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자적 권위 질서를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쉽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비롯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질서에 "섬김으로 다스리고 복종함으로 섬기는" 리더십의 개발이 요구된다. 리더십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것은 리더의 다른 어떤 일보다도 단연 기도 생활이다.[52]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명제(벧전 2:9-10)가 16 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 내에 꾸준히 주장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분화된 목회구조는 좀처럼 변화를 보이려 하지 않고 있다. 성직자 중심의 리더십이 제도화된 에클레시아의 교회 구조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하나님이 대사를

---

[51]George Bama,*Leaders on Leadership* (Ventura: Venture Books,1997),18.

[52]Henry T.Blackaby, Richard Blackaby, *영적리서십*,윤종석 (서울: 두란노, 2006),183.

읽어주시고 목사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평신도들은 관중석에서 구경하듯"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에 빠지게 함으로써 평신도가 지닌 잠재력(자원)이 오늘의 교육목회 현장에서 거의 동결된 자본으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은준관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적 징후와 관련해서 한국의 종교사회학자들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교직주의(clericalism), 교권주의, 개 교회주의, 역사도피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한국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은폐되고 있음을 비판했다.[53]

러셀(L.M.Russell)의 지적처럼 교역(ministry)이해 자체에 아직도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섬김을 삶의 방식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양식으로 볼 때 평신도 역시 이미 섬김의 사역 곧 교역에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역은 성직자의 지위와 동일시되어 너무나 자주 목사(pastor)들만의 영역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전체의 일인 섬김과 교역의 본질적인 연결성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평신도의 참여를 외면하는 목회자 중심의 교역기능은 "교회라는 이름의 조직 내지 기구의 운영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다."

로버트 월리(Robert Worley)는 교회교육을 정의하기를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전체 회중의 표현"으로 규정짓고 있다. 교육신학의 관점에서 정의 할 때,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 교회의 창시자

---

[53]은준관, *신학적 교회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34-39.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계획된 인간 교육의 통로이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력 개발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기초는 교회이해의 본질과 기능의 양 측면에서 정리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laos)이라는 교회이해의 본질적인 측면에 볼 때 지도력개발의 중심과제는 무엇보다 먼저 평신도의 참여를 통한 "회중성"(congregation)의 회복이다. 여기 회중성이란 평신도 개개인의 관계형성만이 아니고, 교회의 집단화를 의미하는 내용도 아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의 참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현존을 함께 경험하면서 각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와 직임 수행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공동체성을 의미한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무대 위에는 신도들이 연기하고 목사는 대사를 읽어주면서 감독하고 하나님께서 감상하시는" 곧 회중 중심의 참여 공동체로 돌아서야 한다.

다음으로 교회의 기능(선교)측면에서 볼 때 21 세기에는 평신도 교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다가올 21 세기는 세속주의의 강한 도전을 예견할 때, 세상 속에서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른 교육목회의 과제는 만인 제사장론에 근거한 교역의 의미 확대와 이에 따른 불가피한 지도력의 변화(수직적 차원에서 수평적 구조로의 리더십의 변화)에 따른 팀(team)사역의 비전을 과감히 수용해서 삶의 현장(가정, 직장, 사회)에서 책임 있는 응답을 할

수 있는 평신도의 지도력을 개발해야 한다. 리더란 이미 성취자가 아니며 고된 일을 면제 받는 자도 아니다. 오히려 리더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어야 한다.[54]

교회의 리더십 개발과 지원에 관련해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오스머(R.R.Osmer)교수는 칼빈의 개혁신학전통의 중심에 자리한 “교수직”(teaching office)의 회복을 오늘의 교육목회의 중심과제로 제안하고 있다(박봉수 역, 「교육목회의 회복」 pp. 165 - 242) 그는 교회의 교수직의 회복을 위해 (1)학문적 탐구와 성직자 양성을 담당하는 신학자들과 신학교들, (2)교단을 대표하는 교육담당 전문기관(예컨대 총회교육부)과 교육지도자들, 그리고 (3)개 교회내 평신도 교육에 참여하는 회중, 등 세 가지 형태의 권위의 중심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1)교회의 규범적 신조들(beliefs)과 실천방향을 결정하고, (2)변화하는 문화적, 역사적 컨텍스트 안에서 교회의 신조들과 실천과정을 재해석하고, (3)교회의 신조들과 실천이 가르쳐질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일에 상호협력의 밀접한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미래학자에 의하면 19 세기는 ‘자유’를 추구하는 세기였고 20 세기가 ‘평등’의 세기였다면, 21 세기는 ‘공동체’(사랑)를 추구하는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공동체 형성은 21 세기 사회의 중심 주제요, 기독교교육 역시 중심 과제로 떠오른다.

---

[54]Henry T.Blackaby, Richard Blackaby, *영적리더십*,윤종석 (서울: 두란노, 2006),185.

Ⅴ.교육목회와 교회성장의 관계 .

교육목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목회의 그 단점을 보완하고 각 교회와 형편에 맞게 계획하여 교회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교육목회로서의 교회성장은 충실하면서도 지속성 있게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된다.

교회성장에 기여하는 교육목회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교육목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개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 교회에 맞는 교육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교인의 개성에 맞게 교육목회를 개발하여야 한다. 오 늘 날의 교육목회는 너무 일률적으로 성경공부에만 국 한되어 있다. 넷째, 모든 연령에 맞는 교육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 다. 지금까지 실천 신학의 학문적 연구는 오래 전부터 교회의 교육적 기능과 그 역할이 막중함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목회 사역 자체가 바로 기독교교육 또는 교회교육으로 이해될 만큼 목회사역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이 날로 커져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55]

1. 초대교회의 성장과 교육목회.

초대교회의 성장과 교육목회의 관계를 살펴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의 지상명령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이 말씀의 중심사상은 "제자를 삼으라 !"는 것이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첫째, 가야하고 둘째, 세례를 주어야 하며 셋째,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세 가지의 다른 동작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의 진행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은 제자를 삼는 일과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초대교회의 성장을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자.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120 여명의 소수 무리로 시작되었다. "모인 무리의 수가

---

[55]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 솔로몬,1993),102.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행 1:15). 오순절에 3,000 여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에 더하게 되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 쓰니라"(행 2:41-42) 120 명의 교인이 하루 사이에 3,000 여명으로 성장하였다. 이 3,000 여명은 진정한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였으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양적인 성장이 결코 질적인 퇴보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하여 졌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행 2:47). 오순절은 금방 달았다 식는 냄비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예루살렘교회는 결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도 여행을 끝냈다. 이제는 강화훈련을 들어갈 시기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전도와 교육을 따로 분리 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새 신자로 굳게 양육하는 한편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말미암아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

오천 명 이상의 제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더라(행 4:4)". 남녀의 큰 무리가 제자가 되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다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니라(행 5;14)". 여기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큰 무리의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행 6:7) 이처럼 교회가 급성장을 거듭하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제자의 수가 더하여졌다 라는 표현 대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사도행전과 다른 시약서신들을 살펴보면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성도수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들이 증가하게 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 지니라(행 9:31)". 여기서는 보이는 교회증가는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와 같은 단일 교회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의 머든 성도들을 집단적으로 포함시키는 지리적 의미의 증가를 뜻하는 것이다.

수다한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두께로 돌아오더라(행 11:21)". 이 말씀은 이방인 세계에서의 교회성장을 시발을 신호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많이 증가 하였으나,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많아 졌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중에 믿는 자 수 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이 있는 자라(행 21:20)". 여기에서 "유대인중에 믿는 자 수 만 명이 있으니" 라는 말은 바울의 전도활동 말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유대인의 수가 수 만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제자들의 전도와 활동을 통하여 별 무리 없이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2. 이민교회와 이민사회간의 교육 목회 현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지상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삶의 환경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회가 사회에 대해 총체적 대응을 지체할 수 없게 되었다. 신학적 조명으로 이 모든 환경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해석하여 기독교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목회적 관심으로 인간 가치의 문제와 사회적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껴안아야 하며, 선교적 시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와 개방적 절차에 의한 정의와 복지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홍기영 교수는 그의 저서 “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선교”에서 “그리스도의 지역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56]

---

[56]홍기영 , *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2000),283.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교회가 그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사회 교육 문제를 선교적 우선순위에 편입하여 목회 및 선교, 교육 정책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교육신학의 정립에서부터 교회적 정책의 개발과 확산, 그리고 실천적 과제들의 설계와 교회 프로그램화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교회내 그룹, 개교회, 지방, 교단, 범교단 연합, 지역 및 세계교회와의 연대등 다양한 수준에서 적절한 과제를 선별하여 합당한 방법을 채택 추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역사라는 맥락 속에서 교육 목회가 궁극적으로 인간화, 민주화, 복지화에 창조적으로 기여하여 인류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교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정한 개입, 활용, 교육, 감시, 선도, 개혁 등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회 교육은 교육 방법이 획일적이거나 전통적이며 …..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교육은 그 중심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신앙교육"에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신앙이란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한 전인으로서의 인격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전인교육의 중요성)[57]

[57]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도서출판 솔로몬),1993,220-221.

1)이민사회와 이민 교회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 더욱 구체화 되었다.[58] 이민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선교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서부터 출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18-20 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또 마가복음 16:15 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다.

누가복음 24:46-48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며 제자들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20:21 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기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이와 같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 함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잃은 자들을 찾아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 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

[58]Paul McGaughan, *The Church and World Missions, The Unfinished Task*, compiled by John E Kyle(Ventura, CA: Regal Books, 1984) 90-91. 폴 맥거간은 이 논고에서 Robert E Spear 를 인용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마태복음 28 장에 있는 지상명령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를 원하신다고 주장한다(벧전 2:9).

하는 일을 하였다.[59] 헌터는 전도를 정의 할 때 전도의 바른 정의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전도의 바른 정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 전달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결심을 통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으며 집사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도왔다. 이렇게 사도나 평신도나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다. 비록 맡은 역할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는 전혀 구별이 없었다.

이민교회와 이민사회는 전적으로 선교적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교회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특권이다. 선교는 거룩한 의무이다. 이민 교회의 존재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민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은 이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그의 선교를 이루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민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

[59]George G. Hunter, *The Contagious Congregation:Frontiers in Evangelism and Church Grouth*(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79) 23-25.

그러므로 이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다면 이보다 더욱 가치 있는 교회의 사명은 없을 것이다[60] 폴 보스윅(Paul Borthwick)은 피어슨(Paul E. Pierson)의 논문에 대한 반응으로서 "선교에 대한 미국 교회의 혼동"이라는 글을 썼다. 피어슨이 지역교회와 선교기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조했는데 보스윅은 이러한 유대관계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첫째는 기존 기관에 대한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하며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체할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명, 그리고 영생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핵심적인 가치를 검토하고 합의해야 하며 마지막은 선교후원과 인력들이 나오는 교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만약 우리가 힌두교도들을 기독교로 회심시키는 것을 의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세계적 의미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오늘날 이민교회는 그 존재 이유와 의미를 알아야 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민 교회들이 보다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삼상 15:22)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민교회는 케리그마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를 통해 지역 사회를 섬겨야 한다.

[60]Paul Borthwick, *The Confusion of American Churches about Mission:* A Response to Paul E Piers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22. No.4. October 1998. 151.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기독교 윤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향하여 그리고 사랑과 선교 속에서 세계를 향하여 회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민교회와 커뮤니케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에서의 말씀과 교제와 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명령과 약속으로 위임하였음에 근거하여 이민교회의 사명은 교제도 좋고 봉사도 좋으나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민교회는 이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선교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대다수의 이민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모든 이민교회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어떤 이민 교회들은 하나님의 선교는 전도나 교회개척과 교회 확장이 아니라 인간을 해방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해방이 실제적으로 전도하지 않고 가능한 일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 인간의 진정한 해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의 자유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종 노릇 하는 것에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해방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총체적인 구원을 추구한다.[61] 이민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부터는 물론이요 현세적인 정치, 경제적

---

[61]홍영기, *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2000), 277.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도록 적극 돕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민교회는 성령의 자유 하게 하심과 성경의 진리로 인하여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만 하고 성경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져야 하고 혹은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분명히 복음은 단지 소수만을 위한 것이다.[62]

그래서 요한복음 8:32 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고(요 15:26) 보혜사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다.(요 16:8)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는 이민교회야말로 참 자유를 주는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민교회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다. 이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언어와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뛰어 넘는 다른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어야 한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간다. 이들을 미 전도종족이라고 한다.[63]

---

[62]Paul G. Heibert, *Anthropological Reflectons on Missiological Issues,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안영권 공역(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1997),136.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꾼을 부르실 때 우리는 당연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응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이다.

요하네스 버카일(Johannes Verkuyl)은 세계 선교를 위한 성서적 기초를 언급하면서 신약에서 마태복음 28 장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비교적 상세히 분석했다. [64] 그는 이 지상명령을 몇 가지 측면으로 설명했다. 이 지상명령이 마태복음의 전체를 요약하는 결론이라고 본 것이다. 마태복음 5:1 이하의 산상복음을 전한 분이 마태복음 28:16 이하의 바로 이 지상명령을

---

[63]미 전도종족이란 말은 개신교선교 전략을 세우면서 나왔던 용어이다. 미전도 종족이란 결코 미개인이 아니다. 복음화율과 교회 상황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지 문명화가 기준이 아니다. 선교의 남은 과업에 비해 선교적 자원(사역자, 자금 등)은 늘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선교 역사의 확장에서 선교 대상에 대한 우선성과 전략성은 늘 관심사가 되어 왔다. 특히 1970 년대에 와서 선교의 구체적 목표 및 전략이 논의되면서 이 문제는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 또는 대상 집단에 대하여 최소 복음화된(Least Evangelized) 또는 미 전도된(Unreached)이란 개념이 등장하였다. 선교학자 랄프 윈터(Ralph Winter)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달 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을 나누어 'The Reached'와 'The Unreached' 개념을 개발하였다. 그리하여 그 지역 또는 해당 집단 내에 자전적(自傳的) 토착교회의 유무를 따져 이것을 구분하였다. 즉, 미 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이란 외부(타문화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종족집단을 복음화 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교인(크리스천)과 자원을 가지 크리스천 공동체가 그 안에 없는 종족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 선교와의 관련은? 결국, 랄프 윈터의 개념은 전도된 종족(Reached People)에는 선교사가 상대적으로 필요 없으며, 미 전도종족(Unreached People)에는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선교사 배치 전략에서 우선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출처 : 미 전도종족선교연대 발행 '선교정탐표준강의안 16p'

[64]Johannes Verkuyl, *The Biblical Foundation for the Worldwide Mission Mandate, Perspectives of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81),48-49.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메시지를 청취한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이었다.

이 지상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함께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다니엘 7:13-14 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의 권세에 근거한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부여 받았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그를 섬겨야 하며 그의 영원한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나라도 민족도 문화도 그의 통치 바깥에 있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2:9 이하에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모든 자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을 고백했다. 골로새서 2:18-20 에서도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다.

버카일은 그의 선교명령이 그를 만물 위에 높인 것이 아니라 그의 선교명령이 그의 권위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다양하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모두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나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다. 그는 파괴를 일삼는 독재자가 아니다. 우리의 치료와 해방을 위해 그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구원자이다. 그의 화해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권위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지속적인 선교명령이다. 그의 부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의 제자들이 수행해야만 하는 절대적 선교명령이다. 이 절대적 선교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버카일은 먼저 "가라"는 동사를 분석한다. "가라"(poreuthentes)는 말은 "이별하라," "떠나라," "경계를 건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계를 의미하는 가? 그것은 사회적 경계, 인종적 경계, 문화적 경계, 그리고 지리적 경계를 의미한다. [65] 그러나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효과적인 선교는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토착민들의 요구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66]

선교는 통문화적인 것이 본질적이라는 보쉬(David J. Bosch)의 입장이라면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성장학적 입장에서의 주장은 선교의 본질적인 특징을 무시한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동일집단의 교회성장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는 통문화적 상황에서 가능한 청취자 중심에서 선교를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선교는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계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

[65] David J. Bosch, *Witness to the World*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19-20.

[66]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0),227.

전함으로써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교회의 책임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물론 그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바다에서 대도시까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까지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했다. 동사로서 다른 의미 하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make disciples of all nations)는 것이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mathete 라는 명사를 동사로 바꾸어 사용하였는데 신약 전체 이 동사는 모두 4 회(마 13:52, 27:57, 28:20, 행 14:21)에 나온다. 바카일(Verkuyl)에 의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메시아 왕국 속으로의 행진에 동참한다는 것이다.[67] 헌터(Hunter)는 전도의 목적을 제자 삼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제자를 삼을 때 지역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봉사를 통해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68] 따라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지역교회의 성장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69]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선교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지역교회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그의 약속에 근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67]Verkuyl, op. cit. 49.

[68]Hunter, *The Contagious Congregation*.30-34.

[69]Donald A. Mcgavran, *The Bridge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y of Missions* (London, UK: World Dominion Press, 1955), 167.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약속하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선교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의 선교명령에 순종한 결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 버카일(Verkuyl)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나타난 “모든”이라는 단어에 중시한다. “모든” 권세, “모든” 족속,”모든” 것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가 이 약속 위해서 끝까지 본질적 사명을 다할 것을 원하였다. 버카일(Verkuyl)은 아무리 세상풍조가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한가지 사실을 확인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그 교회를 마지막 지점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그의 교회가 그의 선교적 부름을 완수 할 것을 촉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이민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에서 제외 될 수 없는 것이다. 선교 방법은 다양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교적 사명은 본질적으로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

2) 교육 목회의 기능.

교육 목회의 기능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며 또 한편으로 변화를 받아 맡겨진 달란트를 잘 운영하도록 하는 데 있다. 회중들의 전반에 걸친 교회생활을 통하여 새 회심 자들을 공동체 생활에 적응시키도록 돕고 회중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는 것이 목회 기능 중 하나다. 이민 교회에 있어서 교육 목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 교육에 집중되어야 한다.

봉사와 전도는 이원론적으로(either-or) 구분하여 접근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both-and)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민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문제는 이 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는데 있다. 어떤 이민교회는 복음전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민교회는 사회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자의 대표적 신학노선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후자의 대표적 신학노선은 에큐메니칼 신학자들이 지지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선포했고 많은 병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료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설교와 가르침 치유다. 그의 사역은 총체적인 선교(holistic mission)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되 특히 가난한 자에게 전하고 갇힌 자와 병든 자와 억압받는 자를 자유 하게 하는 구원사역이 자신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원화하여 복음주의 선교다 에큐메니칼 선교다 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민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와 어린이 전도 그리고 교회 성장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선교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봉사 위주의 선교를 주장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선교는 인본주의적 활동이 아니라 전 인류를 제자로 삼는 것이다.[70] 어떤 선교단체들은 그들이 선교하는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 왔다고 말한다.

즉 더 나은 교육과 건강과 생산성을 위하여 선교지에 왔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단호히 거절한다. 그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선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선교를 단순히 인본주의적 활동으로 보는 입장을 사자와 같다고 비유했다. 오늘날 선교는 이 사자의 위협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에게

---

[70]Donald A. McGavran,*Missiology Faces the Lion (*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Vol.XⅦ. N0. 3. July 1980),337-338.

있어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한 몸으로 동화되도록 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71]

이러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견해에 대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다. 로버트 슈라이터의 견해는 1950 년대까지 로마 카토릭의 선교는 주로 영혼 구원과 교회개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요한 바울 6 세의 "현대 세계 속의 복음화"(Evangeli Nuntiandi, 1975)에서 로마 카토릭의 선교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했다.[72]

바울 6 세에 의하면 복음전도는 인간사회의 모든 계층 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의 영향을 통해 인간을 내적으로 변화시켜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세례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없이는 새로운 사람들도 없다. 따라서 말씀의 능력과 신자의 양심과 복음에 따른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회심을 추구할 때 진정한 전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간은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문화를 복음화시키는 문제를 강조하였다. 복음은 문화와 일치하지 않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 속에 세워질 때 문화는 복음화 된다.[73] 더 자세히 말하면 타 문화에 대한 연구가 전도전략보다 더 중요하고 개인의 회심보다 문화의 회심이 순수한 신앙공동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

[71]Lbid, 341.

[72]Lbid, 343-344.

[73]Pope Paul Ⅵ,*On Evangelization in the Modern World*(Washington D.C: Office of Publishing and Promotion Services United States Catholic Conference, 1975),15-19.

제자화는 언어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문화우월주의에 입각한 선교는 복음전도에 역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러한 로버트 슈라이더의 견해는 다분히 로마 카토릭의 견해를 대변하여 많은 부분에서 에큐메니칼 입장과 공통점을 갖는다.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의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구분한다는 것은 선교적 도케티즘(Docetism: 물질은 그 자체가 악이라는 주의)이라고 본다.

한편 제임스 쉐러는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견해는 성서적이지 않다고 본다. 즉 그는 회심을 위한 복음선포가 사회봉사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견해는 아마도 19 세기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선교는 복음선포와 증거와 봉사와 기독교 공동체의 삶과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레슬리 뉴비긴을 인용하면서 신약은 결코 숫자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74]

여기서 레스릴 뉴비긴은 신약은 결코 숫자적 급성장보다는 오히려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이 대비시킨 제자화(discipling)와 성숙화(perfectiong)의 균형을 주장한다. 교회가 숫자적으로보다는 예수

[74]Lesslie Newbigin, *The Open Secre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8), 139-141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전도를 할 때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또는 상업적인 수법을 통해서 회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격적인 방법으로 전도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와그너(Peter Wagner) 가 제시한 대로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곳에서는 설득의 방법을 통해 복음에 대해 수용성이 약한 곳에서는 현존의 방법으로 선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5] 즉 제자화와 영적 성숙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교육, 의료, 구제, 종교간 대화, 개발, 그리고 사회적 정의가 세계복음화 또는 모든 민족의 제자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반면에 에큐메니칼측은 그것들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76]

1980 년에 열린 멜버른 대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회 주제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 주제하에 4 가지 주용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첫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둘째,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투쟁, 셋째, 하나님의 나래에 대한 교회의 증거, 넷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간권력에 대한 도전이 그것들이다. 맬버른 대회는 위의 4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지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첫째, 지역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둘째, 지역교회는 남을 이용하여 곤궁케 하는 권력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 셋째, 교회내의

---

[75]C. Peter Wagner,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Ventura, CA: Regal Books, 1987),122-123.

[76]James A. Scherer, *Gospel, Church, and Kingdom: A Comparative Studies in World Mission Theolog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7),130-133.

가난한 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일해야 한다.[77]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모든 것이 선교이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라는 스티븐 닐(Stephen Neill)의 주장에 동의하며 광범위한 선교의 정의를 위험스럽게 보았다.

다분히 에큐메니칼 적이면서 로마카토릭 적인 William R. Burrows 는 세계 선교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관점에서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첫째,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현존과 살아있는 증거, 둘째, 사회개량을 위한 활동과 가난과 가난을 야기하는 구조에 항거하는 활동에의 헌신, 셋째, 하나님과의 자유롭게 하는 관계를 증거하는 예전적 삶과 기도, 넷째, 진리를 향해 함께 걷도록 하며 공동 관심을 향해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 다섯째, 복음이 선포되고 삶과 문화를 위한 그것의 결과가 분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선포와 문답이 그것들이다.

버로우스(William R. Burrows)는 화해화 확장보다는 더욱 효과적인 선교모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화해는 오늘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필이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한다.[78] 이와 같이 전도와 사회봉사에 대한 이해는 신학적 입장과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둘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즉 지역교회는 복음전도와 사회

---

[77]McGavran, *Missiology Faces the Lion* (Missiology ⅤⅦ. No.3. 1989*)*, 350-351.

[78]William R. Burrows, *Reconciling All in Christ* (Mission Studies, Vol. ⅩⅤ-1, 29, 1988), 79-82

봉사에 총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총체적 접근을 독일의 선교신학자 빅헤른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선포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사회봉사를 중요시 하였다. 경건주의적 전통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사회봉사(고아들, 가난한 자들, 맞벌이 부부들, 환자들, 떠돌아 다니는 자들을 위한 봉사)를 강조하였다.[79]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지역교회의 사회봉사를 강조하였다. 그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경건하게 된 자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해의 바탕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말씀 선포와 사회봉사는 말씀이 행동화 되어야 하며 행동은 말씀을 이끌어 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석되고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074 년 로잔대회에서 채택한 복음주의적 견해는 비교적 타당하다.

인간과 화해가 하나님과 화해가 아니며, 전도가 사회적 활동이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구원이 아니지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기독교인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이 둘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리의 필요한 표현이며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필요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형태의 소외와 억압도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과 정의 아닌 것에 대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80]

---

[79]박영환, *J,H. 빅헤른과 Innere Mission* (서울: 선교신학, 창간호, 1997),171, 179-185).

[80]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World Evangelization, *The Lausanne Covenant, Lausnne,* Switzerland, July, 1974. Quoted in addendum by Thom S. Rainer, *The Book of Church Growth* (Nashville: Broadman Press,1993),78-79.

이와 같이 전도와 사회봉사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결코 이원화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전도로 말미암아 회심을 경험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하여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Ⅵ.연구과제 수행

1. 연구반 운영과 활동

1)연구반 구성

본 연구자의 연구반은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갈릴리 교회와 갈릴리 방과후 학교 교인과 선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보편성과 미래 지향성을 토대로 구성했다. 여기에 기본적인 연구반 이외의 학원 운영을 돕고 있는 실질적인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부 연구반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연구반	정 미자	55	원장	사모	15년	사모/학원장
	김윤정	45	교장	집사	25년	교장/디렉터
	신동규	40	교사	집사	20년	교사/부디렉터
부연구반	정엘리야	29	교사	집사	7년	교사/부원장
	장 원현	29	직장	집사	2년	교사
	조영웅	27	학생	청년	3년	교사

표 1. 연구반 명단

2)연구과제 수행계획

본 연구의 연구반의 운영은 주후 2011 년 7 월부터 2012 년 1 월까지 7 개월간으로 한다. 7 월은 준비 단계로 함께 모여 연구반의 정의와 연구 내용, 적용 방법 등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모임을 갖는다. 준비 단계에 지나 본 훈련 단계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연구반 운영에 들어간다. 8 월부터 9 월까지 약 3 개월간의 일정으로 이 기간은 훈련기간이다. 이 기간에 3 회에 걸쳐 세미나를 실시한다. 모두 학부모와 교사들인 관계로 본문의 주제가 되는 방과후 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방과후 학교의 실제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이용 기본 설명과 질의 응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9 월까지 훈련 기간을 종료하게 되면 10 월부터 12 월까지는 교회 활동과 방과후 학교 활동 속에 실재 적용단계를 시작한다. 훈련기간의 세미나를 통해 얻은 내용을 어떻게 교회 활동과 방과후 학교에 적용할 것인가 실천하는 실천 단계이다. 이 실천 단계는 적용과 그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 보다 나은 목표를 향해 반복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교회의 정규적인 신앙생활과 방과후 학교 참여하는 신자와 학부모의 비율과 신앙 연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으로 그에 상응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은 평가단계이다. 수개월 동안 진행되어온 교회 활동의 변화에 함께한 신자들과 학부모들의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단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교회의 방향을 준비한다.

모든 것을 급속히 변화하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변화의 틀을 새해 교회 목표에 적용함으로써 실험적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연구과제의 실제 수행일정

<table>
<tr><td colspan="2">기간</td><td>연구 활동</td><td>연구 조사 내용</td><td>비고</td></tr>
<tr><td>준비</td><td>7월</td><td>연구 설명회</td><td># 연구반 모임 및 설명회</td><td></td></tr>
<tr><td rowspan="3">훈련</td><td>7월</td><td>1차 세미나</td><td># 교회와 방과후학교란 무엇인가?</td><td></td></tr>
<tr><td>8월</td><td>2차 세미나</td><td># 신자와 학부모의 자세</td><td></td></tr>
<tr><td>9월</td><td>3차 세미나</td><td>#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민교회</td><td></td></tr>
<tr><td rowspan="3">적용</td><td>10월</td><td>교사팀 훈련</td><td># 교사팀 구성 / 찬양팀, 방송팀
정기적 교사팀 기도회 및 훈련</td><td></td></tr>
<tr><td>11월</td><td>학원에 적용</td><td># 4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td><td></td></tr>
<tr><td>12월</td><td>교회에 적용</td><td># 교회 활동의 변화와 적용</td><td></td></tr>
<tr><td>평가</td><td>2월</td><td>이민교회
성장 평가 및
이벤트</td><td># 교회의 변화에 대한 평가
변화된 교회에 대한 설문 조사
신년 교회 목표를 통한 적용</td><td></td></tr>
</table>

표 2. 연구과제 수행계획

2. 연구과제 수행내용

1) 1 차 세미나

본 연구의 연구 반은 교회 내 집사들과 학원 교사 그리고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 연구반의 방향이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 변화의 주체임을 감안해 교회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찬양 팀과 방송실 담당자 가운데 선정을 했다. 그리고 매주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30에 교회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주후 2011 년 7 월 5 일 교회에서 연구반의 첫 모임을 통해 교회 변화를 위해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1 차 세미나에서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의견들을 게재하면서, 모두가 동일하지 않은 교회모형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일하지 않은 교회모형은 건강한 교회를 세움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임들을 통해 성경을 바탕으로 교회의 모형과 교회의식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각자가 맡아 사역을 하게 될 분야를 결정을 하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함으로 갈릴리교회와 방과후

학교의 모든 교인들과 학부모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할 것을 다짐했다.

2) 2 차 세미나

연구 반을 대상으로 7월 15일 토요일 오후6:30에 약 1시간에 걸쳐 2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내용은 교회 론에 관련된 것이다. 먼저 교회생활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기 위함임을 인지한다. 이제까지 교회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혹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했는지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이들은 이제까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보다는 교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출석 당일 설교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돌파구를 찾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교회가 은혜스러웠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참석한 이들의 공통된 견해는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노력 보다는 삶의 돌파구를 교회에서 찾기에 바빴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되었을 때, 세상에서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참석한 이들 역시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보다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강했음을 인정했다. 가장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한다'이다.

이어서 진행된 두 번 째 주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자는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앞선 주제를 통해 참석자들은 교회 출석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체가 없는 모임은 모임으로서의 목적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험하면 되는 것인가? 교회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예배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들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경배이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구체적으로 행한 일이 바로 예수의 탄생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결국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된 예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역과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교회 신자가 예배 속에서 경험해야 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곧 천국의 소망을 말한다. 인간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예배를 통해 교회 신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경험하며,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서 예배 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의식과 집례자를 통해서이다. 하지만 의식과 집례자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령이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실재(spiritual reality)'로서 예배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회 신자는 예배 속에서 일하시는 영적인 실재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역과 계획, 예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 집례자는 이러한 내용들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신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신자는 예배 속에서 위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차 세미나는 단순한 지식 전달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참석한 연구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을 고려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식의 전달 보다는 기존 교회 신자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스스로의 예배 모습을 되돌아 보기 위해 함께 토론하고,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회신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3) 3 차 세미나

3 차 세미나는 주후 2011 년 8 월 28 일 주일예배를 통해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물론 세미나가 아닌 주일 설교지만 그 내용은 교회론에 대해 언급을 했다. 교회를 신약은 에클레시아(Ecclesia)라고 하는데 이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뜻이다. 그리고 구약에는 카할(Kahal)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혹은 이방 종족에게서 분리됨의 뜻이다. 그래서 교회를 보통 원어 적으로는 불러내서 모인 단체라고 정의한다. 교회의 성경적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의미를 두신다.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통 그 이름을 부르나 이 경우에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오라 하는 곳에 모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지만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해야 하시니 죄를 씻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신다. 이것으로 교회가 다 되느냐? 이제까지의 정통 교회는 여기까지이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면 완전한 줄로 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결합시킨다. 그냥 쇠붙이를 용접하듯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 연결을

시키는데 그런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다. 그러므로 종합적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여 교회의 정의를 내린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예수 피로 구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심으신 자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느 면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일치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님을 고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울이 나사렛 이단 종파를 박멸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다.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말씀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교회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는 연합이다. 교회는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별도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애쓰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방언, 신유, 투시, 예언 입신 등인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성령님이 가져온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은혜이다. 성령님의 것이나 성령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로 가져온다. 피의 공로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져옴을 말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기와 교회를 일치시킨다. 다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즉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선취하는 것이다.

교회는 성령님의 의한 신비한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백성과 그리스도 간에 신비한 연합이 있다. 이 연합은 막연한 공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연합이 아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물질 적인 연합도 아니지만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연합이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이 연합의 고리이다(교통이 증거). 성령님에 의한 연합이니 신령할 뿐만 아니라 변개의 여지도 없다. 이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교회에 계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님의 처소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거소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떼어 놓고 교회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론을 성령론과 분리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교회가 발생한 것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교회론 논의의 기초다.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며, 그 생명의 연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다. 그러므로 교회 론은 생명의 연합 때문에 자기와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킨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생명적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체와 머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교회 론의 근본 핵심이다.

이 신비한 연합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칼빈인 데 그가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해 보통으로 감격해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이 교회의 통일성을 제일 많이 강조했는데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신비한

연합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칼빈의 마음을 감동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를 나누었다는 로마 교회의 비난에 대해 적절히 답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최소한 바른 말씀의 형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던 것이다.

성도의 교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가능하다. 또 지체간의 연결 때문에 상호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지체간의 상호 교제가 가능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과 특히 최근에는 본 훼퍼가 성도들의 교제를 많이 강조하였는데 우리는 성도 상호간의 교제가 가능한 것은 지체와 머리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듯이 기억해야 한다.

이 연합을 전제하지 않고 교회에 개별적으로 가담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기체라는 의식이 없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도 없는 것이다.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개별적으로 와서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심기어져 있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회의 분열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눔은 곧 그리스도를 나눔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 론을 잘 알아야 교회 정치를 바로 하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교회를 잘 모르니 목사들이 정치와 돈에 제일 약하다.

3 차 세미나의 목표는 앞선 1, 2 차 세미나와 다르다. 1, 2 차에서는 교회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사람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교회 변화에 대한 틀을 제시하고, 변화의 방향에 대한 과정과 목표를 제시함으로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3 차 세미나는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 신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 성경을 통해 제시함으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형태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변화된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했다.

3. 교육에로의 적용.

1) 교회 예배에 적용.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적인 이해와 행동과 사랑을 동등하게 학생 개인의 경험에다 융합시키는 것(J.M.Lee) 이다. 가지의 주요 목표는 먼저 학생이 자기 신앙을 지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종교적 지식과 이해를 마음대로 활용하기 위한 그의 인지적 행동의 수정이다. 학생이 자기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교적으로 관련 있는 새로운 실재에 부딪칠 때 기독교적 가치관,태도 등을 형성할 수 능력을 얻기 위한 그의 정의적 행동의 수정이다. 학생이 실존적 주제, 신학적 주제 및 다른 관련된 주제를 마음대로 활용하기 위한 그의 결과적 행동의 수정이다. 학생이 계속적으로 적절한 기독교적 방법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 할 수 있기 위한 그의 과정 행동의 수정이다.

교회 교육의 내용(방법)은 결과내용 즉 인지작용의 결과의 소산물로 간주되는 그러한 성격의 내용을 말하는데 이는 특수화, 정적이다. 과정내용은

일반화되며 동적인 것이다. 인지적 내용은 지식, 지혜, 이해의 3 가지 수준의 지적 내용이다. 정의적 내용은 감정, 태도, 가치를 말한다. 언어적 내용은 객관적 실체를 반사하는 경향을 띤 상징적 내용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비언어적 내용은 교사의 음성의 고저, 몸놀림, 얼굴 표정 등 말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의사전달이다. 무의식적 내용은 꿈, 환상이다. 생활양식내용은 교실이 "기독교적 삶의 실험실"로 생각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실질적 내용을 경험적으로 균형을 이룬 내용들의 상호작용의 덩어리로 개념화 함으로서 지금까지의 논쟁이 되풀이 되어온 "내용중심" 대 "경험중심"의 잘못된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자기 자신의 학습지도에 대한 아주 세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이 바람직한 학습결과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 자신의 가르침의 과정에서 솜씨를 발휘해야 한다.

교사훈련은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고 응용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한다. 학습지도안 작성은 구체적인 행동적 술어로 교육목표를 명시한다. 제시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습사용 가능한 자료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기초한 교육체계 혹은 학습지도안을 작성한다.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그 계획안을 시험해 본다. 필요한 조정을 마친 후 그 계획안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함으로써 효율성을 평가한다.

교육 환경으로는 문화풍토, 지역환경, 학교(교회) 분위기, 교실(학습)분위기, 또래집단 분위기, 가정 분위기, 물리적 환경이다. 바람직한

"환경조성"이란 기독교교육 과제는 "성령"의 개입과 활동을 외면하거나 통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성령"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곁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영적인 차원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태도이다.

2) 교회 밖 활동에 적용.

회중 중심과 공동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강조되는 요인 첫째로, 기술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교육기재의 사용으로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 교육할 수 있게 되었고 교사는 하나의 학습 지도 교사라기 보다는 학습 지도 자료의 매니저의 역할로 바뀌면서 교사의 새로운 기능문제가 학교교육에 대두 둘째로, 공교육의 성격 schooling context 로서 여기 목표는 가르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studio context 로서 실험실에서 일어나야 한다. community context 가 일어나야 한다. J.Wessterhoff 교회교육의 학교화 현상을 교회교육의 위기로 진단한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때 그 의미를 교회학교라는 영역에다 국한시킬 수 없고 교회에서 모든 교육적인 영역이 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다 영향을 주어야 하며 신앙공동체의 전 생활에다 교회교육자들은 그들의 초점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교육환경 조성에 큰 관심을 둔다. 행동화된 신앙 안에서 Christian 의 Identity 를 찾고

신앙공동체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 삶의 스타일을 배우는 사회화 과정을 중요시 한다.

교회를 위한 교육과정 개념으로 Allen W.Graves "교회는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말 보다는 교회자체가 곧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구성 멤버들 서로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는 일종의 프로그램 자체라는 뜻이다. 니버는 "문화를 변혁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 인간의 본성과 행위(개인의 발달이론의 기초) 개발의 컨텍스트로서의 기독교공동체(개인 상호간의 관계이론) 개인과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도덕규범과 윤리 행위이론)이다.

사회와 문화의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이다. 대행기관으로서의 교회기능(인간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인식이론) 교육내용의 범위이다. 개인의 자아의식 개발은 종교적 체험이란 곧 복음화의 영역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의미하고 "실존의 자아" 에서부터 "본래적인 자아" 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L.Sherrill) 공동체 의식 웨스트호프 "살아있는 전통과 상호작용하는 공동체" 전통이란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힘있게 활동하신 역사에 관한 이야기이며 종교의식은 신앙을 구체화하고 신앙의 의미와 비전을 지속시키고 전달하는 의미 있는 예전을 창조한다.

예배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억과 소망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과 소속감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활력 있는 공동체의 의식이다.

역사의식에 있어서 라인홀드 니버는 "세상의 보편 역사는 인간이 자유를 오용하며, 자신을 신으로 내세우면서 신적 지배를 거역하는 것으로 역력히 전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인간의 이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고 진실과 허위가 뒤섞인 세상 역사 속에서 이 보편 사를 다스리시면서 그의 구원의 역사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를 위한 책임이 면제 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행동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다. 교육촉발 자로서의 목회자로 리챠드 니버는 민주적 방법을 통한 평신도의 지도력 개발에 초점을 둔 교육전문적 위치에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목회자의 주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4.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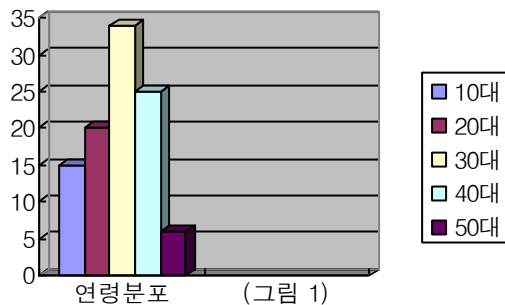
본 연구의 평가는 주후 2012 년 1 월 31 일 프로젝트를 마친 후 설문조사 형식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의 대상은 전체교인이 아닌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들과 방과후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신앙 연륜이 최소 5 년 이상 된 신자들과 방과후 학교에 최소 1 년 이상 계속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 한정했다.

1) 연구반원 개인의 의식 변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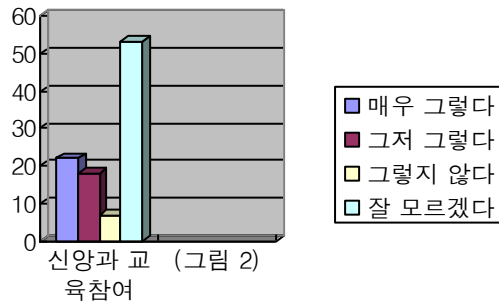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반원은 평균 10 년 이상의 신앙 연륜과 5 년 이상의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이민교회의 한국적 예배에 익숙하면서도 현대 예배에 민감한 변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미래 교회상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이민 목회 중심에 있는 자들이다.

이들 연구 반 모두는 연구 과제 수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 참여하여 교회의 변화와 개인신앙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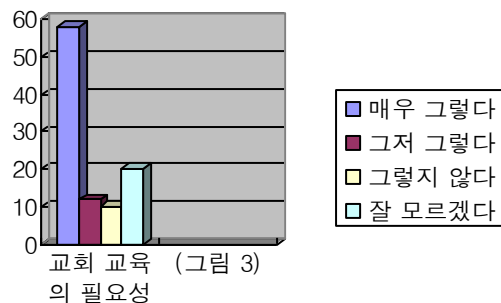
나타나는 설문조사에도 참여하였다. 설문 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 보면 변화의 평균치를 약간 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 신앙의 성숙이 두드러졌고 교회 신앙활동이 적극적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밀접해 졌음을 알 수 있다.

2) 설문조사 분석 내용.

옆의 그래프는 참가자들의 연령분포를 나타낸다. 위의 내용은 10 대가 15%, 20 대가 20%, 30 대가 34%, 40 대가 25%, 50 대가 6%이다. 10 대에서 40 대가 94%를 차지한다. 이민교회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10 대부터 40 대가 미래 중심을 이룬다. 이민교회의 희망인 현 세대를 중심으로 차세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들의 필요와 참여가 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아가서 미래 이민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대상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민교회활동과 교육의 변화가 효과적인 교회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1,2 차는 연구 반을 중심으로 하였다. 마지막 3 차는 전체 교인과 방과후 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본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일 예배 설교와 수요 성경공부를 통하여 실시했으며 방과후 학교 학부모들은 공개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다음의 도표는 참석한 이후 개인의 신앙 변화와 방과후 학교 참여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 2)

연구반의 경우 3 번의 세미나를 교회 전체성도들과 방과후학교 학부모들은 1 번의 세미나를 실시하여 이민교회의 변화와 방과후 학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프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세미나 이후 이민교회의 변화와 방과후 학교 필요성을 공감을 한 것이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민교회의 변화는 미래 이민교회의 방향에 대한 전환과 방과후 학교와 교회와의 긴밀성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세미나 이전에는 이민교회가 커뮤니티와 더불어 방과후 학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미나 이후에는 방과후 학교는 이민교회가 꼭 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만큼 훌륭한 프로그램과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민교회의

(그림 3)

수동적인 활동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민자 사회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의식 변화에 대한 질문과 함께 교육 봉사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 질문에 70%가 교육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다. 이것은 그 동안 이민교회와 이민사회가 교육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교회 세미나와 학부모 컨퍼런스를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민 교회의 이민자의 삶에 대해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도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도들의 교육관련 교육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 교회 성도들 역시 관련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이민교회의 바른 방향과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과제 수행의 한계.

지금까지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이민교회가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교회 성장에 과 개인의 신앙 성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에 상응하는 교인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적절한 교육 봉사가 병행되어 한다. 전문적인 교육팀도 구성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교회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과제다. 방과후 학교 운영에는 어려움의 요소도 많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모험요소를 안고서라도 이민교회의 도전과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과감한 결단을 통해 실천해간다면 이민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진행되면서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이민교회의 목회자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뉴욕 주 교육국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 주 교육국은 어린이 보호와 건강 그리고 안전에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격과 어린이를 교육할 장소의 안전성 확보이다.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는 개인 자격은 뉴욕 주에서 15 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성인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장소가 필요하다. 장소는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된다. 주거용은 특별히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분하지 않지만 개인 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인 경우 입구가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아파트는 상관없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의 까다로운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상업용인 경우에도 교회와 학교 그리고 일반 상가로 구분된다. 교회는 교회 용도로 승인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일반 상가 건물은 반드시 학교용도로 허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까다롭고 신규 허가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음으로 대부분 비 등록으로 운영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주 교육국에서는 일부 18 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해 허가와 감독을 시 보건국으로 이관했다. 그래서 등록된 유아원, 유치원, 학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감독하고 있다. 미 등록된 곳은 특별히 주위 신고로 인해 소방국이나 보건국의 강력한 제제를 받는다. 뉴욕 주에서는 미 등록으로 인한

단속 시 즉시 패쇄 조치하고 계속 감시하여 계속 불법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민교회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합법적인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5.연구과제 수행 이후의 변화.

1) 교육 환경의 변화.

미국에서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인터넷 2'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인터넷 2 에서는 208 개 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70 개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글로벌 대학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은 수년 전부터 강좌를 무료로 올리면서 100 여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무료로 제공되는 대학 통합강좌를 시도하고 있다. 세컨드 라이프닷컴에서는 하버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등이 학점이수가 가능한 강좌를 개설했다. `2010 년 볼로냐 프로세스'로 인해 45 개국 6000 개 대학 3200 만명의 유럽대학생들의 `EU 교육통합'이 올해 시작되었다.

미국 수능시험에서는 수년 전부터 계산기가 허용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는 이런 흐름에 비추어 미래교육은 집단지성, 적시학습, 개별화 교육 방향으로 환경변화를 크게 겪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능동 대처하기 시작한다. 미래에는 인간의 두뇌, 즉 한 사람이 저장할 수 있는 지식보다 수십억 배에 달하는 지식이 오픈소스로 무료 제공될 것이고 따라서 미래의 대학은 똑똑한 학생보다 인간 두뇌 용량의 수천, 수만 배에 달하는 지식을 밤새도록 찾아 다니는 부지런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대부분이 무료, 즉 오픈 소스로 진화하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은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되고 교육 산업의 업종전환이나 수출 등의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미래교육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민교회와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에게 동기부여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이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민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긴밀성을 유지하고 삶 속의 커뮤니케이션이 현장으로까지 확대되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신앙과 교회 활동의 변화를 통해 본 연구가 추구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학습향상과 교회 교육 선교 전략은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2)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

본 연구를 통해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을 자료만 가지고는 물리적 시간의 제약으로 불가능했음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이다. 이것은 앞서 설문 조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교육에 참여한 이들의 의식이 전보다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참여자들, 교사나 학부모, 교인들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교회학교의 변화이다. 장년 위주의 교회 성장에서 어린이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구성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동안은 어린이들의 교육은 형식 위주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나타난 교사, 학부모, 교인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커뮤니티 교육 봉사의 필요성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본 연구자의 교회는 교인 분포가 어린이 50% 장년 50%이다. 이것은 다른 이민교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민교회의 미래를 예측 가능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Ⅶ. 목회자 능력 개발

이민교회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학습향상과 교회 교육 선교 전략은 전적으로 목회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적용을 위해서 먼저 목회자의 상담능력, 리더십 그리고 교육행정에서도 활용되고 극대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학습향상과 교회 교육 선교 전략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상담가.

목회상담은 목회와 상담이 합쳐진 용어이다. 목회적 차원(교회와 신앙)을 고려하면서 목회자가 교인(피 상담자)의 영적, 정서적, 감정적, 행동적, 관계적(가족, 타인, 또는 하나님) 문제를 성서적 진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상담적 이론과 실제적 기법들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과정이다. 목회를 학문

적으로 접근할 때 목회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학영역에서는 실천신학에 속한다. 반면 심리학 영역에서 응용과 적용 분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회상담은 두 가지 면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보편적 정의와 전문적 정의이다. 보편적인 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그의 목회사역과 연관해서 교인들을 돌보며 도움을 제공하는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을 뜻할 때의 목회상담이다.

반면 일정한 임상훈련과 상담기법을 배워서 목회적 현장에서 상담을 제공할 때는 전문적인 목회상담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목회자가 상담자이어야 한다고 말할 때는 보편적 의미로서 타당한 것이지만 전문적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역할이 단순히 전문상담자의 역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담사역을 하나의 은사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회상담의 기본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과 용서로 수용하고, 상담자와 피 상담자가 일치해야만 깊이 이해할 수 있다[81].

상담가로서 목회자는 먼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3:1-8 에 오후 세 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메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

[81]목회상담 [牧會相談, pastoral counseling], 네이버 백과사전.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 여겨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예수를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믿어주시는 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거나 축소하게 만든다. 복음은 오직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다. 혹은 오직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는 부자가 되고 병이 낫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복음의 참모습이 아니다. 참 복음을 모르면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참 복음은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이다.

참 복음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된 것이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 이름이 만능열쇠가 된 것이다. 예수 치료가 내 치유가 된 것이고, 예수 축복이 내 축복이 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빛을 발한다.

(롬 1:16)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행 4:12)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 (히 12:2)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지만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먼저다. 복음을 소유하지도 못한 자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복음을 소유하는 방법은 사도행전 행 2:37,38 에 잘 나와 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를 받아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했다면 이제부터 복음의 풍성하고 부요함을 누려야 한다. 복음을 누릴수록 복음의 능력은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해진다.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행 3:6,7)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빌 2:11)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야 한다. 복음의 능력은 꿈꾸는 삶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빌 3:14)

목회자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학습향상과 교회 교육

선교 전략을 위해서 또한 성경 연구를 위해 먼저 공부 해야 한다.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근간이 될 것이며 바르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성경의 바른 역사이다. 성경이 이세상에 나오기 전의 창세기 신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둘째는 인간들이 임의로 성서를 왜곡한 정경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야 한다. 넷째는 성경상에서의 오류와 해석에 대한 올바른 신학의 정립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로 믿고 이해하는 것이다. 아직도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들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민 교회 목회자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학습향상과 교회 교육 선교 전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 능력이다.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의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단계로 들어섰다면 이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의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바람직한 상호의존성은 개인에게 행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봉사와 공헌 그리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목회 활동에 있어서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승-승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승-승은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에게 이익과 만족을 주는 사고방식이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무시하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우기면서 자신의 결정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승-패적 사고, 즉,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지는 것이다. 이 때 성도가 용기를 내서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고 틀린 목회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 패-승적 사고, 즉, 나는 지고 상대방은 이기는 것이다. 승-승적 사고를 하려면 용기와 배려의 마음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승-승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 관대하면서도 용기가 있어야 하고, 공감적이면서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용기와 배려 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승승의 바탕이 된다.

다음으로는 풍요의 심리를 갖춰야 한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패러다임이 풍요의 심리이다. 반대로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진정으로 기뻐해 주기 힘들고, 말로는 당사자의 성공을 축하하나 속으로는 기뻐하지 않는다. 둘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는 것, 즉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한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먼저 이해와 신뢰 그리고 인정과 존경을 받기 원하는데, 이것이 충족되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곧 상대방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처방하기 전에 먼저 진단해야 한다. 신뢰하지 않는 의사가 내리는 처방은 신뢰할 수 없다. 훌륭한 판단을 위한 열쇠는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판단 먼저 하는 사람은 결코 상대방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또 자기사고적 경청을 피해야 한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듣고 대답하는 것을 자기사고적 경청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적으로 경청해주면 상대방도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마련이다. 셋째, 시너지를 내야 한다.

시너지는 전체가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둘 이상이 합심해서 함께 일한 결과가 각각 따로 일해서 얻은 성과보다 더 큰 경우에 시너지가 났다고 한다.

시너지를 내려면 먼저 나와 다른 상대방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성도들의 차이점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각자의 은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먼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자신이 갖지 않은 장점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던 많은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승-승을 생각하고,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고, 시너지를 내는 습관을 들인다면 상호의존을 통한 공동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82]

2. 리더십

목회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학습향상과 교회 교육 선교 전략을 위해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리더십(leadership)이 있어야 한다. 리더십. (leadership)이란 지도자. 즉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가는 능력.

---

[82] http://blog.naver.com/klcblog?Redirect=Log&logNo=90040926625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리더란 것은 배의 함장과 비슷한 존재이다. 승객들을 어디로 태울지, 무엇을 태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주장과 같은 역할이 리더이다.

지금 사회에는 영적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와 교단의 교세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미국 교회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 전례 없이 자원이 풍부한 이 시대에 교회는 사실상 영향력을 잃고 있다 원인은 리더십 부재다. 리더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83]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 나에게 죄만을 무서워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100 명의 설교자를 달라. 그들이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상관하지 않으며, 그들은 지옥 문들을 부술 것이요 지상에 천국을 세울 것이다." [84] 비전과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 100 명만 있어도 이 세계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믿음 없는 1,000 명보다 믿음 있는 1 명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세계적인 감리교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불과 같이 일어나는 사도적인 기독교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원을

---

[83]Henry Blackaby, *영적 리더십*, 윤종석 (서울: 두란노, 2002).21.

[84]Kenneth. Collins, *John Wesley's Concept of the Ministerial Office,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3(1,2)*, (Spring-Fall, 1988), 118.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했기 때문이다.[85] 존 웨슬리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표현하기를 세계를 그의 교구로 생각했다.

그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가? 둘째,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그들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넷째, 그들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86] 이민교회가 지금 계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이러한 영적 자격을 갖춘 지도자들의 부족이다. 하나님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만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전 아일랜드의 복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다. “여기에 짧지만 확실한 방법이 있다. 아일랜드의 모든 목회자들로 하여금 사도들과 같이 살도록 하게 하라 그리고 사도들처럼 설교하게 하라. 그러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87]

조지 헌터는 영적 지도자가 교회 성장의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 성장의 눈(church growth eyes) 은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성장의 가능성을 보며 위대한 일이 가능하며 세계의 민족들이 복음에 의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

[85]Hunter, *To Spread the Power,* 211-212.

[86]George G Hunter, *John Wesley as Church Growth Strategist, Wesleyan Theological Journal.*21(1,2),(Fall, 1986), 32-33.

[87]Lbid., 33.

안목이다. [88] 교회 성장의 눈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심을 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전한 진리에 반응을 나타낸다.

방과후 학교를 통한 어린이 전도와 교회 성장에 주력하는 이민교회 목회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는 점점 성장한다는 비전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분명한 목표를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방법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 따라서 교회성장의 눈은 희어서 추수하게 된 영혼들의 추수가능성을 보는 안목이다. 영적 지도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사도적인 식견을 요구한다.

란 뵈메(Ron Boehme)에 의하면 사도적인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다. 섬기는 지도자의 리더십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절대적 진리와 정직성에 기초한다. 둘째, 사랑의 동기로부터 출발한다. 셋째, 생명의 고귀함을 안다. 인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깊은 경애심을 가진다. 넷째, 솔선수범한다.[89]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기초한 모범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한 경건과 사랑을 실천하는 종의 리더십은 세속적인 리더십과 다르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리더십이다.(눅 22:25-27)

로버트 그린리프는 종의 리더십을 통해 피지도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더욱 현명하고, 더욱 자유롭고, 더욱 자율적이고, 더욱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

[88]Hunter, *To Spread the Power,*(TN: Abingdon Press, 2007), 37.

[89]Ron Boehme, *Leadership for the 21st Century,21 세기의 지도자,*허광일 역 (서울: 예수전도단, 1993), 94-99.

원하는 리더십이라고 주장한다. 종으로서의 영적 지도자는 자기 희생, 지혜, 강한 정신력, 그리고 훈련을 필요로 한다.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관심, 동정, 그리고 사랑을 가져야 한다. 로버트 그린리프에 의하면 교회는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섬기는 조직이다.[90]

구약에서는 이사야 53 장과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1:45 과 빌립보서 2:5-8 에서 종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 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은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들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비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전파를 위해 철저히 종으로서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받은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22-33 절에 잘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 6:17)고 고백하였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갈 6:14).

종으로서의 이민교회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 육신적 원리(요 1:14)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성 육신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민교회 목회자가 이끄는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이다. 신앙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마땅히 섬기는

[90]Robert K. Greenleaf, *Servant Leadership*(New York: Paulist Press,1977),13-14, 218, 277.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아 종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맥가브란의 제자인 피터 와그너는 교회 성장시키려는 교회지도자는 마땅히 그 값을 지불하고 그를 따르는 평신도들도 당연히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91] 이것은 교회성장은 대가를 요구한다.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값이다.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장을 위한 책임을 맡아야 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평신도와 사역을 함께 나누어야 하며 교회성장의 신학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그러면 평신도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가? 먼저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에 적극 동의해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친교그룹을 재조정하고 리더십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피터 와그너는 결론적으로 " 목회자와 평신도간에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고 양자가 교회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한다면 교회성장을 일어난다"고 주장한다.[92]

또 하나는 인간관계 셀프 리더십이다. 셀프 리더십은 번역하면 자율적 리더십이다. 즉 말 그대로 직원들이 자기규제와 자기통제로 자신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이 리더십에서 리더의 역할은 감시와 관리 조정 통제를 통하여 부하들이 올바른 자기규제와 자기 통제를 갖게 하는 것이다. 영적 지도자가 사심 없이

---

[91]C. Peter Wagner,*Leading Your Church to Growth* (Ventura, CA: Regal Books, 1984), 46-69.

[92]Libd., 70.

그가 이끄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 반드시 그 조직이나 단체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베니스와 나누스(Warren Bennis & Burt Naus)에 의하면 리더십은 권력의 현명한 사용이다.[93] 리더십은 권력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조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조직을 현 상태에서 미래에로 옮긴다. 그것은 조직의 개혁을 위해 그 조직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교회성장이 평신도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는 27 가지의 은사들을 조사했다.[94]

베니스와 나누스(Bennis & Nanus)에 의하면 지도자는 4 가지 단계를 통해 자기를 개발한다는 것이다.[95] 1 단계에서 지도자는 비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그것은 자석과도 같이 목표를 불러일으키며 행동하게 한다. 지도자는 비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비전을 붙잡는다. 2 단계에서 지도자는 그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모든 조직의 성패는 그 비전의 의미를 나누고 해석하는 것에 달려 있다. 지도자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

[93]Warren Bennis & Burt Nanus, *Leader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5),4.

[94]C. Peter Wagner, *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Ventura, CA: Regal Books, 1970),249-250.

[95]Warren Bennis & Burt Nanus, *Leader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5),26-68.

3 단계에서 지도자는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지도자는 그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한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리 매김을 하는 것은 그의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도자는 신뢰성을 갖기 위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4 단계에서 지도자는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져야 한다. 훈련을 통한 꾸준한 기술연마만이 긍정적인 자기상을 정립할 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왈렌다 요소(Wallenda Factor)를 통해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 왈렌다 요소(Wallenda Factor)란 뒤를 돌아보며 과거의 사건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목표들을 포함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그 일에 경주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실패는 시작이며 희망의 뜀판(springboard)이라고 보는 자세를 말한다.[96]

변화의 리더십은 자기변화를 기본으로 해서, 팀의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공동체 차원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성찰이 필요가 있다. 자신을 완벽하게 리드하는 자신으로의 여행 즉, 셀프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을 진실로 리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뿐이기 때문이다. Self – Leadership 의 바른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리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리드할 줄 알아야 한다. 셀프 리더십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여 참된 자신의 리더가 되는 것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유일한 리더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 당신은 자신의 리더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96]Lbid., 70-71.

주변에 있는 여느 리더와 같이 당신 또한 훌륭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리더가 될 수도 있다.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셀프 리더십이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즉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속적인 과정이 바로 셀프 리더십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셀프 리더십은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에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Self-Leadership 키우는 능력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다르다. 우리의 내재적인 본성은 상반되는 두 세력간의 끊임없는 전쟁터와 같다. 한쪽에선 "포기 해, 쉬운 길을 가야지. 정말 어려운 일이야. 시도도 하지마" 하고 다른 쪽에선 "네 인생을 무엇인가 의미 있게 만들어야지? 넌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 하고 싶지는 않지만, 꼭 해야만 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자신을 어떻게 리드해야 하는 가? 우리가 선택한 것을 이루기 위해, 도전에 직면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비하는 사람에겐 위기는 기회가 된다. 우리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나를 바꾸는 전략으로 먼저 자기 관찰 (자기평가)하는 것이다. 내가 현재 누구이고, 앞으로 무엇이 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자기 비전과 목적 설정 체계적이고 사려 깊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설정한 목표만이 우리 행동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기가 만든 목표는 장기간의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단기적 목표가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적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우리는 목적에 이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한 자기분석을 해야 한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도전적일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다. 성공적인 셀프 리더들은 구체적 목표가 없이는 절대로 여행하지 않는다. 구체적 목표가 없다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당신 인생과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라.

그리고 자기 보상 자신을 성취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기 보상이다. 우리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인 보상(물질적, 정신적)을 함으로써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 긍정적 사고와 셀프 토크 (Self-talk) -적극적 실행 이다. 긍정적 사고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당신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셀프 토크는 자기 충만적 예언이다. 왜냐하면 보통 매일매일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부정적인 셀프 토크는 당신의 목적 달성과 자신에 대한 호의를 방해한다. 마지막은 네트워킹과 팀 시너지 만들기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많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 팀으로 함께 일해야 한다. 팀 작업 환경은 전체 작업장의 40-50%를 차지하고 있다. 팀 성공의 핵심은 바로 시너지의 창조이다. 시너지란 팀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행동할 때 할 수 있는 것 보다, 함께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말은 널리 사용되는 TEAM 이라는 말이 Together Everyone, Achieve More 의 약자인 것과 매우 잘 일치한다.[97]

다음은 슈퍼 리더십이다. 셀프 리더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슈퍼 리더십이 있다. 거기에서 리더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행동에 책임지게 셀프리더로 키우도록 코칭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슈퍼리더는 구성원의 개인의 능력을 중시해 인재를 영입하고 육성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진정한 리더십은 구성원의 자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식 리더는 구성원의 개인정인 능력을 중시하며 ‘알아서 스스로 한다’ 는 정신을 중시한다. 본인 스스로 그러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리더십 전개에서도 그러한 성향을 추구한다. 똑똑한 사람을 영입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재육성을 강조하여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각자가 스스로의 주인이고 리더가 되어야 진정한 조직 경쟁력이 형성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 리더에 가장 가까운 기존 리더십 개념이 바로 ‘슈퍼 리더십’이다. 지식으로 이끄는 슈퍼 리더십은 자신의 성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한 리더들을 조직 내에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슈퍼

[97]http://blog.naver.com/klcblog?Redirect=Log&logNo=90040926625

리더란 '구성원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셀프 리더라 될 수 있도록 리드해 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슈퍼 리더십의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이 직면한 급격한 환경 변호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으며,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구성원 스스로가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리더십의 발현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구성원 내부의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한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통적인 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 가도록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로 부각되게 된 것이다.

슈퍼 리더의 성공 패턴이 있다. 인적 자원의 가치를 차별화한다. 청 렴성을 간판으로 정가에 진출하여 시정을 맡게 된 모 교수가 조직 장악을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하는 두 사람을 중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오히려 가장 기피했어야 할 인물들이었다고 한다. 우스개 같은 이 일화는 학자가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지만 올바른 안목을 갖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능력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가장 근본임은 이미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리더는 인재 확보가 아니라 인재 양

성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자질 있는 리더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라. 하지만 선택된 리더를 올바른 셀프 리더로 키우는 데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식스 시그마는 다른 경영혁신 기법과 크게 차이나는 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다양한 벨트로 분류하는 내부 전문가 제도라는 점이다. 모토로라는 식스 시그마를 추진하면서 화이트 벨트, 그린벨트, 마스터 블랙벨트, 챔피언 벨트와 같은 다양한 벨트로 이름을 붙여서 경영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등급화 시켰다.

벨트 개념은 동양 무술의 수준을 나타내며, 경영 혁신 과정에서 다양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습득한 사람의 등급을 나타낸다. 이러한 벨트 제도에 근거한 전문성 강화 전략에서 인력의 기능을 층별화 하려는 리더십의 방향을 읽어야 한다. 똑같은 과장급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축적된 전문성에 근거하여 경영혁신 역할에 투입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성원의 인격은 동등할 것이다.

슈퍼 리더의 성공 패턴은 인적 자원의 가치를 차별화한다. 인재 양성, 셀프 리더를 의도적으로 키운다.파트너십 개념을 추구한다. 슈퍼 리더의 7 가지 실천 과로는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되어라. 셀프리더십의 역할 모델이 되어라.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라. 긍정적 사고 유형을 창조하라.보상과 건설적인

질책 통하여 셀프 리더십을 개발하라. 그룹 활동을 통해 셀프 리더십을 개발 시켜라. 셀프 리더로 대우하라.[98]

또 팔로우 리더십이다. 팔로우십은 리더십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리더의 영향력을 따르게 되는 조직 구성원들의 특성과 행동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즉 여러 리더십 이론들은 어떻게 하면 훌륭히 구성원들을 이끌까 이지만, 팔로우십은 어떻게 구성원들이 따를까 이다.

Leadership 과 Followership 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기 별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개념은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필수적인 존재이다. 조직이 성공을 거두려면 양자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만 한다. 즉, Leadership 을 잘 발휘하는 탁월한 리더와 Followership 을 잘 발휘하는 탁월한 Follower, 둘 다 있어야만 한다. 리더십의 정의를 자신과 남을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법으로 이끄는 능력이라고 할 때 팔로우십은 리더를 잘 보좌하고 리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자녀가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이 되는 것에 지나친 관심으로 부모가 아이들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 하면 모두 리더가 되려고만 하고 보다 겸손한 실천이 요구되는 Follower 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성공 팔로우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될 때 그 조직을 건강한 성공 조직으로 만들 수

[98]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501&docId=56622448&qb =7IWA7ZSEIOumrOuNlOyLr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있는데 성공 팔로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리더의 위치에 가게 되면 부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고 자기가 부하 시절에 가졌던 상사의 모습을 생각하며 부하들을 대하기 때문에 조직의 신뢰가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성공 팔로우와 성공 리더 두 가지 역할 모두 훌륭히 수행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난 주저 없이 이순신 장군을 들게 된다.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이 위태롭게 된 임진왜란 시절 그렇게도 자기를 미워하고 불신했던 임금에게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고 역도의 죄를 몰아 죽기 직전까지 심한 고문은 물론 백의 종군하는 수모까지 당했던 이순신에게 자신이 백의 종군하는 동안 조선수군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다시 3 도수군 통제사의 자리를 준다고 했을 때 웬만한 사람이라면 억울하고 분통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이순신 장군은 기꺼이 왕의 명을 받들고 12 척 밖에 남지 않은 조선 수군으로 130 척 대형선단을 몰고 쳐들어 오는 왜군에 맞서 아무도 승리를 생각지 못했던 명랑해전을 통쾌한 승리로 이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에서 우리는 진정한 팔로우의 모습과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된다. 성공리더가 되기 전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 팔로우가 되어보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훌륭한 리더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 이지만 훌륭한 팔로우가 많이 있어야 훌륭한 리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99]

3.설교 능력.

목회자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학습향상과 교회 교육 선교 전략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로 설교능력 (Preaching) 이다. 구체적으로 설교란,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심도 있게 이해시키고 풀어주는 말과 능력과 사건이 설교이다. 일례를 들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3:3~9 절 까지 씨 뿌리고 난 후 벌어지는 평범한 진리를 말씀했다. 이런 경우의 말씀은 전도에 속한 말씀이다. 그러나 그 평범한 말씀을 전하는 의도를 확연하게 깨닫지 못하여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을 때에 또다시 예수께서 18~23 절 까시지 풀이해 주었다. 이 뜻풀이가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99]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2&docId=69203179&qb=7IqI7Y28IOumrOuNlOyLr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나타나고 벌어지고 진행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설교이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쳤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바로 설교이다. 이런 설교는 말이 필요치 않고 행동 그 자체만이 유일한 설교이다. 끝으로 예언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이루어진 그 사건 자체가 예언한 말씀의 유일한 설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목회 설교자들은 대부분 성경 본문 말씀의 뜻풀이 수준에도 못 미치는 즉,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알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 어느 유명한 목사와 신학자는 이러저러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전하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는 교주들이 되어 몸부림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 행위 설교와 성취 설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독재자가 되어 자기가 그려보고 상상할 수 있는 성경관 내지 신앙관만 전하는 교주들이 되어, 값싼 동정심으로 몇 푼어치 이웃을 도운 것으로 하나님 사랑 운운하며 자기의 명성과 교세 확장에만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의 기질과 같은 교주 목회자들이 바로 그들의 생명 줄을 그토록 끈질기게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릭 워렌은 설교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낚시하러 가서, 낚싯대를 들어올리지도 않고 그물을 걷어들이지도 않는다.” [100]

[100]릭 워렌,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6), 337.

목표가 여럿이라면 설교는 방향을 잃고 혼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 설교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야기 설교일수록 함축적인 용어를 써서 긴장감을 주어야 한다. 설교에 긴장감을 주면서 목표를 향하여 시원스럽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도 목표는 분명해야 한다. 보통 목표를 정할 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소설 구성의 핵은 갈등에 있다.[101] 본문 구성에 있어서 갈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여기서 플롯이란 용어로 표현하려고 한다. 구성에 있어서 갈등 구조는 이동성이 없이는 구성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내용에 극적인 전환을 만들어 주고, 절정을 향해 집중적으로 치닫게 해주는 것이 플롯이라면, 여기의 생명은 이동성이다. 설교에서 플롯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교 내용을 작성할 때, 단순한 구성을 넘어서 문장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주거나 문장 자체에 흥미를 넣어주어, 청중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따라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문학 비평가이자 소설가인 포스터는 단순한 이야기와 플롯이 있는 이야기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리는 이야기(narrative)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된 사건들의 이야기(story)로 정의해 왔다. 구성(plot) 또한 사건들의 이야기지만, 그 강조점은 인과 관계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 왕이 죽었고, 이어서 그 여왕도 슬픔을 이기지 못해

[101]전상국, *당신도 소설을 쓸 수 있다*(서울: 문학사상사, 1994), 126.

죽었다.'는 진술은 플롯이다.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대답한다. 반면에 플롯은 그 사건의 이유를 말해준다."[102]

유진 로우리(Eugene L. Lowry)의 말대로, 청중은 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은 "문제에서 그 모순을 해결점으로 옮겨가는 전이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설교에 있어서도 문제점에서 해결로, 가려움에서 긁어줌으로 옮겨지는 연결고리가 설교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성서적 내용이나 역사적, 교훈적, 혹은 윤리적인 내용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다.[103]

성경 이야기에도 플롯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플롯으로 말씀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플롯을 지닌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운 것도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왜 자기네를 짐승 취급하는 유대인을 도우려고 했을까? 이것은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플롯이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성서연구 분야의 책임자로 있었던 시몬 바르 에프라트 교수는 성경의 플롯을 이처럼 설명한다. "많은 경우에 성경 이야기(biblical narratives)의 플롯은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것을 극적 아이러니(dramatic irony)라고 하는데, 이는 독자는 알고

---

[102]E.M. Forster, *Aspects of the Novel* (1927: reprint, Harmondsworth, Eng.: Penguin Books, 1962), 93-95.

[103]Eugene L. Lowry, *이야기식 설교구성,* 이연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35.

있는데 등장인물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일어난다. 또 등장인물이 최고의 관심사가 아닌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나 사건의 진행이 등장인물이 열망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진행되는 것으로부터 일어난다. 아이러니는 때로는 사건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등장인물의 말로써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말로 나타내어졌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말이 아이러니(verbal irony)는 취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극적인 아이러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말하자면 비판을 하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강조하거나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또한 극적 아이러니는 때로는 정의가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은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견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쓰여지는데, 이런 것은 등장인물이 가진 편견과는 대조되는 것이다."[104]

찰스 스윈돌 목사는 새들백교회 목사인 릭 워렉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 연구를 설교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대한 신뢰를 떨어지게 만든다."[105]비록 번역본이지만 영어 성경의 권위를 세워가며,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믿는다.

---

[104]Shimon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Sheffield Academic Press, 1984),125.

[105]릭 워렌,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박경범 공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6), 263.

X .결 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전도와 교회 교육 선교 전략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의 상징으로 교회가 드러나야 한다. 교회가 세상에서 움 추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바짝 다가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편으로 오신 것이다. 지상의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한다. 교회가 사회 속으로 깊숙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민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민자들의 빠른 정착을 돕고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전도와 학부모 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회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교육의 장소다. 자라나는 어린이의 육적인 건강과 지식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장차 미래교회의 주역으로 키울 수 있는 훌륭한 인재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중추적 기둥인 청년 대학부도 인재의 보고다. 이들을 교사로 훈련시키고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 방과후 학교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할 수 있고 그들에게 교육 봉사를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도 갖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이민 개척교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자도 처음 무연고 지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통해서 학부모를 전도했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고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었다.

한가지 이민교회가 갖는 부담은 지고 가야 한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이다. 일반 비 그리스도인이 보는 교회상은 구제와 봉사로 비쳐질 때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실 방과후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료가 아니고 유료인 경우 이러한 부분에서 학부모와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연구자도 방과후 학교를 교회가 운영하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한계를 절실히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원칙은 없지만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이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가능한 교회가 양보하고 학부모가 도움이 되는 것이 복음 전도에 유익이 되었음은 사실이다.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먼저냐 현실이 먼저냐 하는 과제 앞에 언제라도 복음이 최우선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민교회 성장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다.

이민 사회의 학원(방과후 학교, 중고 입시학원, 대학 입시학원, 유아원 포함)의 문제는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인 밀집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학원들이 말해주고 있듯이 학원(방과후 학교, 중고 입시학원, 대학 입시학원, 유아원 포함) 운영자들의 교육적 소명감이

요구된다.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회는 역시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106]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했다. 잡화상처럼 인기 품목을 취급하다가 다른 상품으로 쉽게 바꾸어 버리는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가 성인이 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건강한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열정과 사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 교육 당국에서도 이러한 양질의 교사와 운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갈릴리 방과후 학교는 더 많은 이민교회가 합법적인 학원(방과후 학교, 중고 입시학원, 대학 입시학원, 유아원 포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데이케어 교사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설립 운영까지 돕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합법적인 학원(방과후 학교, 중고 입시학원, 대학 입시학원, 유아원 포함)이 많이 설립되게 되면 이민 자녀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원(방과후 학교, 중고 입시학원, 대학 입시학원, 유아원 포함)을 운영하게 되는 이민 교회에도 자립과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민교회가 지향하는 “타운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타운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흐르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는 것이다.

---

[106]정일웅. *교육 목회학* (서울: 솔로몬 말씀사,1993), 5

나아가서 이러한 정규학원(방과후 학교, 중고 입시학원, 대학 입시학원, 유아원 포함)들이 연합회를 조직 구성하게 되면 주 교육당국과도 좋은 정보와 자료를 협조하게 될 것이고 좋은 교육적 아이디어도 주 교육 당국에 제공함으로써 한인 이민사회의 건강한 정치력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교회에 접목시켜서 운영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뉴욕 주는 어느 주보다 교육법이 강화되어 있다.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안전과 건강이 확보되어야 한다. 방과후 학교로 이용하는 공간은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자격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다. 주 교육국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건물 자체가 학교용도(Certificate of School)이거나 또는 교회용도(Certificate of Church)의 허가를 뉴욕 시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공공건물 용도로서 기존 건물에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신규로 건축하는데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중소교회는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서 비 허가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장소가 확보된 교회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을 교회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유는 등록 절차에 대한 무지 그리고 인정된 교사 확보의 어려움이다. 뉴욕 주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15시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광야교회 갈릴리 학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변화에 대한 용기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것을 단기간에 성취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한 단계씩 실천해 가면서 부단한 자가 분석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이 요구된다. 신앙생활과 교회 활동을 통해 관계된 이민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교회 특성상 지역사회의 충분한 파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꾸준한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부모들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일지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회는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내 헌신자 그룹을 양성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이 과정은 교회 내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 위탁을 통해서 훈련시켜야 한다. 준비된 교육팀은 효과적 학원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과했어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의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방과후 교육을 위해서는 이벤트와 같은 특별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만남의 시간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교회 행사로는 절기 행사 혹은 특별 집회 등 비정기적 교회행사를 적극 활용한다. 총신대학교 정성구 교수는 "2000년대를 향한 한국 교회의 목회 전망"에서 한국교회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목회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 라고 했다.[107]

신속하게 변모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학생들이 쉽게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력, 효율적인 설득력, 토론 참여 등이 중요하다. 저학년(유치원에서 2 학년까지)의 경우 부모의 돌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 미흡하다. 모든 것을 부모님이 준비시켜 주어야 했던 것들을 하나씩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학습을 훈련시킴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켜 볼 수 있다.

학습 능력이 뒤처지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학습 훈련이 되지 않은 현상이다. 학교 공부는 훈련된 학습 자세에서 나타난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독서훈련을 통해 좋은 학습 자세를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학습 훈련된 학생들은 평균 한 학년이 지나면 향상된 성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이 향상되면 다툼을 일으키던 거친 성격도 좋아져서 친구관계가 원활해짐을 볼 수 있다. 방과후 학교는 가정과 학교의 중간 매게 체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에 결핍이 있거나 과보호 등으로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어린들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학부모들은 방과후 학교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불만을 표출한다.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거나 상급 학년 또는 하급 학년을 불문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 대부분은 가정 환경에서 오는 경향이 많다. 협조와 배려하는 훈련이 가정의 학부모로부터

---

[107]이중표외 9 인, *교회발전을 위한 선교개발* (서울: 쿰란출판사, 1993), 61

학습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방과후 학교의 몫으로 기대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편 부모나 가정 환경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또래간의 다툼은 어디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공립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불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그렇지 않다. 모든 다툼의 원인과 결과까지도 포괄적으로 방과후 학교의 몫이 된다. 공립학교는 대부분 같은 학년이어서 다툼의 폭이 작을 수 있다. 방과후 학교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골고루 섞여 있어서 또래와의 다툼, 하급자와 다툼, 상급자와의 다툼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경우 대부분은 자녀들의 일방적인 불만만 듣게 되는 학부모들은 모든 것을 방과후 학교의 잘못으로 추궁한다.

오늘날 하나 혹은 둘의 자녀를 갖는 가족구성 현실에서 형과 언니, 동생의 관계로 대 가족의 문화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방과후 학교의 순기능이다. 이러한 순기능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해하고 좋아한다. 사실 학생들도 집에서 들어보지 못한 형, 언니 하는 소리에 형제애처럼 친숙해지고 서로가 좋아한다. 이러한 것은 학부모와 학교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과후 학교는 학부모들이 다 할 수 없는 돌봄의 영역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방과후 학교의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보다는 엄밀하게 가정에 가깝다. 공립학교 수업시간 이후부터 부모들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의 돌봄은 거의 부모와

교사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장기간 최소 3 년 이상 등록하고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는 학교 관계보다는 이웃관계처럼 친숙하다.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부분을 방과후 학교가 채워주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부모의 역할까지 제공해 줌으로써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있다. 자녀들도 방과후 학교에서는 학생이지만 자녀의 역할까지도 배울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부모들의 평가 속에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평소 가정에서 해 주지 못한 부분이나 고쳐주지 못하는 습관 등은 방과후 학교 선생과 협력하여 좋은 자녀로 변화되어 감을 들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을 자료만 가지고는 물리적 시간의 제약으로 불가능했음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이다. 이것은 앞서 설문 조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교육에 참여한 이들의 의식이 전보다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참여자들, 교사나 학부모, 교인들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교회학교의 변화이다. 장년 위주의 교회 성장에서 어린이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구성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동안은 어린이들의 교육은 형식 위주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나타난 교사, 학부모, 교인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커뮤니티 교육 봉사의 필요성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본 연구자의 교회는 교인 분포가 어린이 50% 장년 50%이다. 이것은 다른 이민교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민교회의 미래를 예측 가능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퀸즈(Queens Boro) 지역에서도 특히 후러싱, 베이사이드, 리틀넥(Flushing, Bayside, Little Neck)은 한인과 중국인이 밀집 된 아시안 지역이다. 아시안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다.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도 아시안이 주로 문화권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교육열이 지대한 민족이다. 자녀교육에 열성이 대단하다. 모든 의식주보다도 자녀 교육이 우선이다. 교육환경만 좋다고 한다면 어느 곳이라도 주거지를 이동해서까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다. 방과후 학교, 데이케어 센터도 한인과 중국인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보다 낳은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좋은 조건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 운영자들의 의식도 낳아지고 있다. 교육은 영리보다는 교육적 사명감이 앞서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적 사명감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선의의 경쟁은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지역 공동체에게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퀸즈 지역은 주로 아시안 문화권이다. 아시안은 주로 한인과 중국인이다. 공립학교에도 25 학군과 26 학군에서 학생들의 많은 수가 아시안이다. 아시안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한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 상업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적인 면에서 보는 전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교육은 양적으로만 치우치면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교육은 보여지는 외형이 아니다. 교육은 내용이다. 어떻게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되느냐에 교육의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의 교육 목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적 사명감과 교회의 영혼 사랑이 포함된 교육 목회를 한인교회가 해야 한다.

교육은 그 대상을 한정할 수 없다. 열린 공간처럼 교육도 그 대상이 무한하다. 언제 어디서든지 교육의 대상은 바뀌고 변화한다. 그리고 올바른 교육은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좋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갈릴리 방과후 학교는 그 지역과 대상을 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퀸즈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브롱스 지역의 공립학교 (Philip H. Michael Child Care Center Inc.)와 협력하여 다민족 교육에 비전을 가지고 있다.브롱스 지역은 퀸즈 지역과 달리 아프리카 문화권이 상당하다. 브롱스의 비영리 교육재단 프랭크 D. 와렌 CCC 의 김윤정 교장은 패밀리 홈 데이케어 자격 취득과정을 본 연구자와 협력하여 퀸즈 지역과 브롱스 지역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브롱스 공립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통하여 다민족 문화권에도 교육의 장을 확대하여 명실공히 미국화 교육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Appendices

Bibliography

A. 한국서적

김득렬, *은총의 교역-목사 : 목자와 교사* ,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신대출판부,1998.

김병서, *한국사회 변동과 기독교 백년 ,* 서울: 기독교 사상 12 호, 1984

김상복.*속시원한 상담.* 서울 도서출판 MB, 2005

박기순. *인간, 매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박영환,*J,H. 빅헤른과 Innere Mission* , 서울: 선교신학, 창간호, 1997

박용규.*근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1995

서요한,*중세교회사* ,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3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이시형. *대인공포증.* 서울: 일조각, 1993.

이병수,우기동, *철학의 철학사적 이해* ,서울: 돌베게,1994

이중표외 9 인.*교회발전을 위한 선교개발.* 서울: 쿰란출판사,1993.

전상국, *당신도 소설을 쓸 수 있,* 서울: 문학사상사, 1994

정성구,*실천신학개론,*서울:총신대학교 출판부,1996

정일웅.*교육목회학.*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1993

정일웅,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서울: 로고스연구원 3 판

정일웅,*기독교교육학 강의안,* 서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1977

정태기. *위기의 목회상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홍기영·,*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2000

B. 번역서적.

Alister McGrath, *Reformation Thought,종교개혁 사상,* 최재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C.Ellis Nelson,신앙교육의 터전,박원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1996

Chrles H.Kraft,*기독교 커뮤니케이션*,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2001

Eugene L. Lowry, *이야기식 설교구성,* 이연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Evert Ferguson,*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Third Edition,*엄성옥,박경범 공역, 서울: 은성출판사,2005

E.S. Moire,*인물중심 교회사*,곽안전,심재원 공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1993

George Carl F.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명성훈 공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Henry Blackaby. *Spritual Leadership. 영적 리더십.*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2.

Martin, Oden, Thomas C. *Pastoral Theology: Essentials of Ministry. 목회신학.*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Paul G. Hiebert,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김영동,안영권 공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1999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6

Ron Boehme, *Leadership for the 21st Century,21 세기의 지도자,*허광일 역, 서울: 예수전도단, 1993

Siegler,F.M.,*Christian Worship, 예배학 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출판사,1984

Thiessen, Henry C.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Tozer, Wilson A. *Speaks to Students: 세상과 충돌하라*.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5.

Webber, Robert E. *God still Speaks: a Biblical View of Christian Communication.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Westhoff, J., *Will our children have faith?,*정웅섭 역,*교회의 신앙교육,*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3

C. 외국서적

C.Peter Wagner,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Ventura, CA: Regal Books, 1987

C. Peter Wagner, *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 Ventura, CA: Regal Books, 1970

David J. Bosch, *Witness to the World,*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Donald A. Mcgavran,*The Bridge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y of Missions,* London, UK: World Dominion Press, 1955
Donald A. McGavran,*Missiology Faces the L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Vol. XⅦ. N0. 3. July 1980.

Donald A. Mcgavran,*Understanding Church Grouth*(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0.

E.M. Forster, *Aspects of the Novel* , 1927: reprint, Harmondsworth, Eng.: Penguin Books, 1962

George G. Hunter, *The Contagious Congregation:Frontiers in Evangelism and Church Grouth,*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79

George Bama,*Leaders on Leadership* (Ventura: Venture Books,1997

James A. Scherer, *Gospel, Church, and Kingdom: A Comparative Studies in World Mission Theolog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7

Johannes Verkuyl, *The Biblical Foundation for the Worldwide Mission Mandate, Perspectives of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81.

Lesslie Newbigin, *The Open Secre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8

Paul Borthwick, *The Confusion of American Churches about Mission:* A Response to Paul E Piers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22. No.4. October 1998

Paul McGaughan,*The Church and World Missions, The Unfinished Task*, compiled by John E Kyle, Ventura, CA: Regal Books, 1984

Pope Paul Ⅵ,*On Evangelization in the Modern World,* Washington D.C:Office of Publishing and Promotion Services United States Catholic Conference, 1975

[1]Robert K. Greenleaf, *Servant Leadership,* New York: Paulist Press,1977

Shimon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Sheffield Academic Press, 1984

The Intenational Congress of World Evangelization, *The Lausanne Covenant, Lausnne,* Switzerland, July, 1974. Quoted in addendum by Thom S. Rainer, *The Book of Church Growth(Nashville:* Broadman Press,1993.

Warren Bennis & Burt Nanus, *Leader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5.

William R. Burrows, *Reconciling All in Christ,* Mission Studies, Vol. ⅩⅤ-1, 29, 1988

D. 논문

Paul Borthwick, *The Confusion of American Churches about Mission:*A Response to Paul E Pierson, *Interna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22. No. 4. October 1998. 151

William R. Burrows,*Reconciling All in Christ,* Mission Studies, Vol. ⅩⅤ-1, 29, 1988

E. 간행물

박영환,*J,H. 빅헤른과 Innere Mission,* 선교신학, 창간호, 1997.

Kenneth. Collins, *John Wesley's Concept of the Ministerial Office,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3(1,2)*, Spring-Fall, 1988

George G Hunter, *John Wesley as Church Growth Strategist, Wesleyan Theological Journal.*21(1,2), Fall, 1986

F. 인터넷 자료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83292820&qb=MTLrj5ntjJDrspU=&enc=utf8§ion=kin&rank=10&search_sort=0&spq=0

http://blog.naver.com/hosan62?Redirect=Log&logNo=10002726799

http://charger07.egloos.com/324892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3097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docId=76070868&qb=7Y6Y7Iqk7YOI66Gc7LmY&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3uSDF5Y7u8ssunG4wVssc--413443&sid=T3CAvUUxcE8AAGFCQcI

http://blog.naver.com/suandth?Redirect=Log&logNo=120117506836

http://blog.naver.com/suandth?Redirect=Log&logNo=120117506836

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19600§ion=section12

http://blog.naver.com/klcblog?Redirect=Log&logNo=90040926625

http://blog.naver.com/klcblog?Redirect=Log&logNo=90040926625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
11&dirId=110501&docId=56622448&qb =7IWA7ZSEIOumrOuNlOyLrQ
==&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2&docId=
69203179&qb=7IqI7Y28IOumrOuNlOyLrQ==&enc=utf8§ion

=kin&rank=1&search_sort=0&spq=0

G. Website

목회상담 ,牧會相談, pastoral counseling, 네이버 백과사전